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6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1월 29일)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108배를 하며 새해를 맞이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대학생 · 청년들이 차담을 마치고 주현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제안으로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진우 스님, 108배·청년 소통하며 새해맞이

1월 1일 서울 조계사서 청년불자들과 만나

대불련 · 대불청 · 조계사청년회
청년불자 30여 명 함께 정진
진우 스님 덕담 · 조언 등 건네
"마음 중심 잘 잡고 살아가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청년들과 만났다. 취임 이후 줄곧 청년세대와 소통하며 '마음처방전'을 써온 진우 스님이기에 청년과 함께한 새해 첫날은 조금 더 특별했다.

진우 스님은 1월 1일 오전 7시 30분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 정진으로 새해를 맞았다. 진우 스님의 108배 정진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을 시작하는 일과 중 하나지만 이날만큼은 대학생불자들과 조계사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불자이자 국악가수인 권미희 씨와 이소원 양도 함께 108배를 올렸다. 이 밖에도 총무원 교역직 스님과 불자들로 대웅전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진우 스님은 108배를 마친 뒤 조계사를 찾은 불자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넸다. 스님은 "지난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 격려와 위로, 칭찬을 해드리고 갑진년 올해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진우 스님은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바라지만 부처님께서는 과한 집착에 인과가 생긴다고 하셨다"고 강조한 뒤 "새옹지마의 노인처럼 산다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으면 그것이 진정한 부처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뭘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뭘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108배, 명상, 경전 독송, 주력 등 어느 수행법이든 하루에 5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한 진우 스님은 "불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다. 자신부터 부처님 진리를 충분히 체득하고 그 마음을 전해 진짜 포교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진우 스님과 대중은 이어 조계사 범종각에서 새해맞이 타종을 하며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했다. 또 20여 명의 청년불자들은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으로 자리를 옮겨 진우 스님과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국악가수 권미희 씨는 "108배로 새해를 맞이해 더 뜻 깊다. 스님께서 지난해를 열심히 살았는지, 그래서 편안했는지 물으셨는데 돌아보면 괴로움이 많았던 것 같다"면서 "올해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하는 친구들을 포교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지난해 9월 진우 스님 취임 1주년을 맞아 길상사에서 열린 '마인드풀 피크닉'에 참가한 송산하 서울대 불교학생회장은 "당시의 감정을 '살아있는 걸 느낀다'고 말했는데 변함이 없다. 올해는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며칠 전까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직을 맡은 유정현 대불련 61년차 회장은 "지난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 감정소모로 힘든 시간이 많았다"며 "이제는 짧은 명상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취임한 주현우 대불련 62년차 회장은 "나를 내려놓고 부처님께 바치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불련은 차담에서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 순례를 하며 모연한 '천년을 세우다' 기금 350만원을 진우 스님에게 전달했다. 늘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종단에 보탬이 되는 모습에 진우 스님은 환한 미소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청년불자의 새해 각오와 소망을 들은 진우 스님은 "내 마음이 편안하려면 마음을 컨트롤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나 이외의 것이 변하거나 이뤄져야 편안하다고 느낀다"며 "즐거움이 생기면 데칼코마니처럼 괴로움이 생긴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는 '나'라는 걸 알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닫자' 성도재일 맞이 정진 잇달아

전국서 '정각 이룬 날' 기념 법회
불자들 모여서 철야용맹정진 실시
울산에선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
안동사암연합에선 원행 스님 초청

오는 1월 18일은 갑진년 부처님 성도절(음력 12월 8일)이다.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재일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사부대중 모두가 마음 속 불성을 깨우치고자 매년 성도재일 앞뒤로 철야정진을 하거나,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하는 등 부처님께서 체득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수행하고 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불기 2568년 성도절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월 17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경내 법왕루에서 성도재일 전야 참선정진을 실시한다. 개인 물통 또는 텀블러, 편한 복장이 필수다. 성도재일 당일인 1월 18일 오전 11시에는 주지스님을 법사로 특별법회를 봉행하며 성도절의 의미와 뜻을 되새길 계획이다.

서울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도 전야정진 및 성도광명일법회를 봉행하며 부처님 되신날의 의미를 기린다. 전야정진은 1월 17일 저녁 7시~11시 지하 4층 보광당에서 진행되며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곳에서 주지스님을 법사로 성도광명일 법회가 봉행될 계획이다.

관악산 연주암(주지 탄문 스님)은 8일간 기도를 이어간다. '성도재일 8일 기도'는 1월 11일 입재를 시작으로 1월 18일 대웅전에서 회향한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 스님)는 1월 16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성도재일 3일 기도 및 철야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철야용맹정진은 1월 17일 저녁 9시부터 시작하며 회향은 다음날 아침이다. 국제선센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성도재일을 맞아, 국제선센터 사부대중도 부처님 되기를 서원하는 특별기도와 철야용맹전진을 실시한다"면서 "정성껏 발원을 올려 희망찬 새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의 사암연합회에서도 다양한 성도절 기념법회와 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일깨워 사부대중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사암연합회는 1월 18~22일 매일 오후 2시 KBS울산홀에서 '제10회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를 성대하게 봉행한다. 이번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에서는 자비도량참 10권 38장을 5일에 걸쳐 독송하며 불보살 명호를 부르는 순간마다 참회하는 마음과 자비의의 마음을 다해 절을 올릴 계획이다. 태화문화센터 건립불사 원망성취를 발원하며 열리는 이번 법회는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포교사단울산지역단, 울산불교여성회, 공무원불자회, 울산불교대학동문회, 개인택시법륜회 등이 함께한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금호 충무마리나스포츠센터 2층 특설법당에서 통영지역 스님 및 불자 300여 명과 함께 '불기 2568년 성도절 연합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정안 스님을 법사로 법문을 청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13일 오후 2시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부처님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대법회를 봉행한다. 안동지역 내 20여 개 사찰이 함께하는 이날 대법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것이라 더욱 소중하다. 특히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사로 나서 사부대중이 성도의 길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법문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안동불교사암연회회장 도륜 스님은 "성도재일을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부대중은 무상보리(無上菩提)를 향해 더욱 정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성도재일 법회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웃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신행공동체로서 자비도량에 신심 깊은 원력불자들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진흥원 2024년 상반기
• 4대 공모사업
•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

제14회 원효학술상 공모
접수 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3월 4일(월)

제8기 대원청년 불자상 · 동아리상 공모
접수 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월 16일(금)

제8기 불교 기관 · 단체 지원사업 공모
접수 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월 23일(금)

제9기 대원불교 학술 · 콘텐츠 공모
접수 기간 : 2024년 2월 19일(월) ~ 3월 15일(금)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4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3월 13일(수)
불교심리상담사, 명상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강의 영상 제공함.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 취득 가능)
대원아카데미
학점은행제 학생 모집
모집 과목 :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2024년 3월 개강
접수 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3월 7일(목)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kbpf.org) 참조, 문의 : 02-719-1855

진우 스님 "발고여락 자세로 종무 임하길"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

1월 2일 조계종 총무원 시무식
올해 '천년을세우다' 성과 기대
"부처님 법 온전히 전해" 다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신년사를 하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부대중이 발원문을 낭독하며 종무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해를 맞아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들에게 '발고여락(拔苦與樂)'의 자세로 종무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불기 2568(2024)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서 이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스님은 제37대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년을세우다'의 성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 △명상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국제 선명상대회 개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방안 확정 △2024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 등 올해 주요 사업을 언급한 뒤 "미래본부를 비롯한 각 부서가 종단의 사회적 회향을 위한 정진에 적극 동참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스님은 올해 종단 개혁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30년의 현대화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틀을 세워나가는 불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문화유산 전승과 국민 향유를 돕는 제도 개선, 국립공원 내 사찰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각원, 부서에서 준비하는 사업 모두 사부대중과 국민 나아가 중생의 삶을 평안하게 한다는 발고여락의 자세로 진행한다면 한국불교 중흥은 우리 앞에 열릴 것"이라며 "늘 수행하는 마음으로 종무에 진력해 세상을 비추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무식에선 교육원장 범해 스님과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종무원에게 새해맞이 덕담을 전했다. 범해 스님은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가 되도록 다함께 진력하자"고 말했으며, 선업 스님은 "전법·포교 가장 일선에 있는 포교원이 더 파이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무식 참석 대중은 종무원조합 김동욱 종무원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한국불교 중흥의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처님 법 온전히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파리 길상사, 유럽 연락사무소 지정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사찰 네트워크 강화 기대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가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유럽 연락사무소로 지정됐다.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에 따르면 총무원은 지난해 12월 20일 파리 길상사의 해외특별교구 유럽 연락사무소 지정을 승인했다. 해외 연락사무소는 전 총무원장 자승 대종사가 2011년과 2016년 한불 수교를 기념한 불교문화행사 당시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개설됐다. 종단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면서 해외 포교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해외교구에 따르면 파리 길상사의 연락사무소 지정은 유네스코 본부가 파리에 있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이다. 한국의 산사 7개 전통사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 보관된 〈직지심체요절〉 또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세계인들이 유네스코를 방문한 뒤 길상사를 찾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K팝을 비롯해 한국·불교문화에 관심 갖게 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해외특별교구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해외교구 유럽 연락사무소가 지정됨에 따라 프랑스 길상사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돼 유럽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 많은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사찰과의 연계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은 "연락사무소 지정을 계기로 종단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마련된 만큼 유럽 내 한국불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나아가 유럽불교 단체와의 협력도 기대된다. 주어진 소임에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락사무소 지정을 계기로 서산 간월암(주지 정경 스님)은 길상사 수해복구 불사금 500만원을 지정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 발전에 최선 다하자"

전국비구니회 · 국제포교사회 등
새해 진우 스님 예방 잇달아
'명상 중심' 포교 확대도 강조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전국비구니회 임원진.

새해를 맞아 조계종 주요 단체의 총무원장 예방과 신년하례가 잇달았다.

먼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임원진과 종회의원스님들은 1월 3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부 승가의 한 축이 될 것을 약속했다. 예방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종회의원 철우·정관·법해 스님, 부회장 혜욱·정묵·서광·혜솔 스님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먼저 회장 취임 두 달여가 지난 광용 스님에게 "비구니회가 더욱 편안해진 느낌이다. 덕화가 훌륭한 비구니스님들을 만나면 관세음보살 품안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종단도 비구니스님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광용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이 덕화와 기량으로 종단을 안정으로 이끌어줘서 든든하고 감사하다"면서 "종단 행정이 안정돼야 수행생활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강화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 비구니회 임원진들에게 "비구니스님들 인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할애된 부분이 없지 않기에 관심 갖고 방향 설정에 대한 고민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홍포하는 지향점이 같다. 앞으로도 한국불교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월 4일엔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과 임원진이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국제포교사회는 지난해 12개 부서의 활동을 보고했다. 또 1월 14일 열리는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설명하며 "세계대회로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킬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정혜 스님이 "현재 국제포교사 130여 명이 불교상담개발원에서 명상지도자과정을 통해 정진 중"이라고 설명하자 진우 스님은 반가운 마음을 표했다.

진우 스님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K-명상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중"이라면서 "국제포교사들이 명상 프로그램을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방을 우선으로 한 국민 건강증진에 명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우 스님은 또 1월 5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지역 신도대표들의 신년하례에서 종단이 개발 중인 'K-명상'을 중심으로 포교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군포교를 위해 군종교구와 전담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힌 스님은 "올해는 군에서 진행하는 수계법회에도 직접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진우 스님, 국립공원에 전통사찰 소통 주문

송형근 이사장 등 임원진 1월 4일 조계종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립공원공단 임원진에게 공원 내 전통사찰과의 소통을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예방에는 공단 측 김경순 상임감사, 김도헌 경영기획이사, 손영임 자원보전이사, 김영일 탐방안전이사가 함께했다. 조계종 총무원에선 기획실장 우봉 스님, 문화부장 혜공 스님,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 배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

진우 스님은 먼저 지난해 도립공원 지정 43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동화사·은해사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송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팔공산국립공원 마스터플랜'을 언급하며 "국립공원의 날인 3월 3일 전후로 기념행사를 팔공산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또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을 묻는 진우 스님 질문에 "산과 하천, 바다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관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라고 답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전환됐으며, 진우 스님은 송 이사장에게 "종단 및 국립공원 내 사찰들과 다양한 소통을 하며 당면한 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법련사, 미래문명 선도 도량 나아가자”

서울 법련사, 1월 5일 창건 50주년 기념법회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
법어 통해 창건 의미 되새겨
법련화 보살 천도재 봉행도

법련화 보살 원력으로 창건돼
사찰 미술관, 서점, 찻집 효시
새로운 도심 포교 모델 보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 스님)가 창건 50주년을 맞았다. 경복궁 앞인 서울 종로구 사간동 한복판에 건립된 법련사는 지난 50년 동안 도심포교를 이끈 선구적인 도량이었다.

법련사의 창건은 신심 높은 한 우바이의 원력에서 시작됐다. 그 주인공은 신심 높은 불자로 잘 알려진 김법련화(1920~1973, 속명 김부전) 보살. 그녀는 효봉 스님을 친견하며 신심을 키웠고, 이는 도량 건립 원력으로 이어졌다. 1973년 11월 17일 법련화 보살은 종로에 있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송광사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이에 송광사는 그녀가 내생에는 수행자로 태어나길 기원하며 사미니계를 수여했다. 법련화 보살은 계를 수지한 다음날인 11월 18일 타계했다.

이후 법련화 보살의 49재일인 1974년 1월 5일 서울 종로 사간동 법련사 개원법회가 봉행되며, 도심 포교 반세기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년인 1995년, 시대 변화에 따른 사격의 일신이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법련사는 귀인이 되는 우바새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과 인연을 맺는다. 김 회장과의 인연으로 법련사의 현대식 도심포교 도량으로 사격을 일신하게 된다.

중창불사 이후 법련사는 파격적 포교 방법들이 시도됐다. 사찰 안에 미술관과 서점, 찻집들을 만든 것이다. 현재 종로구 삼청로 일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즐비한 문화의 거리가 됐지만, 법련사 불일미술관 개원 당시 문화전시공간은 법련사가 유일했다. 지금은 일반화된 사찰 서점, 찻집을 처음 시작한 것도 법련사로 알려졌다.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와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등 주요 내빈이 창건 50주년 축하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이처럼 법련사는 사찰 내 문화공간을 대중에게 제공하며,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화포교의 새 모델을 제시한 선구자였다.

1월 5일 서울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창건 50주년 기념 법회와 행사는 그동안 법련사가 이끈 반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념법회는 창건을 이끈 법련화 보살의 천도재로 시작됐다. 법련사 대중은 높은 신심으로 도량 건립을 발원하며 자신의 사재를 송광사에 기증한 법련화 보살의 원력을 기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천도재 이후 이어진 기념법회에서는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가 법석에 올라 법련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의미를 더했다.

법련사의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되짚은 현봉 대종사는 “송광사가 어려울 때 서울 법련사 신도들의 보시로 호남 조계산에서도 정진을 잘 할 수 있었다. 구산 스님이 국제선원을 개원하셨을 때 법련사는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세계화의 관문이었고, 보조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법련사에서 보조어록을 강의하시면서 보조 국사의 통불교 사상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송광사와 법련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깊은 도량”이라며 “오늘 창건 50주년을 맞이해 효봉 스님, 구산 스님 그리고 현호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현봉 대종사는 법련사가 미래 문명을 선도하는 부처님 도량으로 변모할 것도 당부했다. 대종사는 “이제는 새로운 문화 문명의 전환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법련사가 이 같은 미래 문명에서 한국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고민하고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법련화 보살의 보시 공덕을 기렸다. 진경 스님은 “법련화 보살의 유지는 법련사와 부전장학회로 이어졌다. 이 같은 공덕으로 지금의 우리가 법련사에서 열심히 기도·정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련화 보살의 공덕을 선양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기도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련사는 창건 50주년을 축하하는 축하케이크 절단식을 진행했으며, 80세 이상 신도들에게 스카프를 선물했다. 법회 후에는 심진 스님, 가수 강정아, 불일합창단 등의 문화공연도 진행됐다.

돈관 스님 “자승 대종사 ‘동국발전’ 유지 잇자”

학교법인 동국대 신년하례서
법인 기관 등 80여 명 참석
자승 대종사 공적 발표 · 추모

학교법인 동국대 구성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동국대 건학위원회 고문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동국발전 불교중흥’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1월 3일 교내 정각원에서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신년하례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이상훈 이사, 김정훈 감사를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제정 스님,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지정학 법인사무처장과 산하 학교장, 교무위원 등 학교 구성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장 돈관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자승 대종사가 제시한 ‘동국발전 불교중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해봉당 자승 대종사께서는 ‘동국 발전이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말씀을 최초로 해주셨다. 또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동국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며 “자승 대종사께서는 너무나 큰 화두를 던져주셨다. 이 화두를 풀어내는 것은 우리 후학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돈관 스님은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 간 상호 화합과 소통, 종립학교로서 정체성 강화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독려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부처님 법 전하는 전법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1월 3일 교내 정각원에서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사진은 참석 대중이 상호 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이날 신년하례에서는 자승 대종사에 대한 추모의식도 진행됐다. 추모의식은 돈관 스님의 헌향과 추모 삼배가 진행됐으며, 자승 대종사가 동국대에 남긴 공적 발표가 이뤄졌다.

윤재웅 총장은 공적 발표를 통해 자승 대종사의 공적으로 △동국대 약학대학 유치 △정문 진입로 개선 △로터스관 신축 부지 매입 △선서화전 수익금 등 기부금 18억원 희사 △단일대학 최대 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도움 등 5가지를 소개했다.

윤 총장은 “5가지 공적은 자승 대종사가 베풀어주신 자애로움”이라며 “지대한 공덕 인연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이제는 대종사가 남긴 유훈을 토대로 동국 발전의 내용을 더욱 실속 있게 채워나가야 한다”고 밝힌 윤 총장은 “저를 비롯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동국의 구성원들은 동국대를 국내 8위를 넘어 글로벌 명문 사학으로 도약시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것이 대종사를 가장 진실하게 추모하고 깊은 헌신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하례는 서울캠퍼스 정각원장 제정 스님의 선창에 따라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제창하고 회향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진흥원 상반기 4대 공모사업 실시

원효학술상 · 대원청년불자상
불교기관지원 · 학술 · 콘텐츠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의 현대화·생활화·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4년 상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14회차를 맞은 ‘원효학술상’ 공모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등에서 현대사회, 문화에 대한 불교적 조명과 한국 철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연구학자를 격려하고 인류문명의 창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자부분 대상 저서(1명)에 3000만원, 특별상 저서(약간 명)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 석·박사 과정 학생부분 논저(약간 명)는 400~8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제8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시대 상황에 맞는 청년불자 인재 양성을 위해 진행된다. 개인 대학·대학원생에게 300만원이, 초등 불교동아리에 50만원, 중·고등 불교 동아리에 150만원, 대학·대학원생 불교 동아리에 15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접수는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제8기 불교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작지만 큰 원력을 펼치고 있는 숨어 있는 단체들을 적극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꾸준히 불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침체되고 있는 풀뿌리불교의 초석이 되도록 마련됐다. 1개 기관·단체별 150~50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제9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한다. 불교학술부문에서는 저서 500~1200만원, 번역서 300~1000만원이 지원된다. 불교 콘텐츠 부문은 만화·동화·불교다큐멘터리·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선별 500~1000만원을 지원한다.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임은호 기자



세밑 불교문화유산 국보·보물 지정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세밑, 불교문화유산들이 대거 국보와 보물 등으로 지정 및 지정예고돼 눈길을 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부안 내소사 동종의 국보 승격이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해 12월 26일 고려 후기 동종을 대표하는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국보로 승격된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다.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도인(道人) 허백과 종익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이 내용을 적은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공중을 비행하는 듯 연출된 역동적인 용뉴, 종의 어깨 부분을 올림 연꽃 문양으로 입체적으로 장식하고 몸체에 천인상(天人像) 대신 삼존상을 부조로 배치한 점, 섬세한 꽃잎으로 표현된 4개의 당좌(撞座), 균형 잡힌 비례와 아름다운 곡률을 가진 몸체 등 뛰어난 장식성과 조형성을 지녔다. 이는 장인 한중서의 숙련된 기술력과 예술성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지정됐다.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은 신라시대 고찰로 알려진 관룡사와 그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진 기암괴석의 산봉우리 등 산세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고 있다. 반야의 세계로 향하는 용이 이끄는 배라는 뜻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을 재현한 듯한 불상인 용선대(龍船臺)와 관룡사의 많은 불교문화유산이 자연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조선시대 불상과 불교 건축물을 비롯해 고려시대 청동북, 경전류들이 세밑에 대거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천수원'명 청동북,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 등 총 8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은 승일, 성조 등의 조각승들이 1665년(조선 현종 6) 완성해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삼장보살은 천상(천장보살), 지상(지

부안 내소사 동종 '국보' 승격
관룡산 관룡사 일원 '명승'돼
송림사 삼장보살상 등 보물로


국보로 승격된 부안 내소사 동종.

지보살), 지옥(지장보살)의 세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조선시대 사찰에서 봉행한 천도재의 하나인 수륙재에서 공양을 드린 시방세계 성중들 가운데 일부를 형상화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송림사 삼장보살상은 조각 작품으로는 국내의 유일한 사례로 미술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천수원'명 청동북은 1162년(고려 의종 16)에 제작된 청동북으로, 표면을 굵고 가는 선을 통해 3구역으로 구획하고 각 구역을 문양으로 장식했다. 몸체 측면에 제작 시기, 무게, 사찰명, 주관 승려가 적힌 글씨가 있어 12세기 중엽의 중요한 편년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협주석가여래성도기〉는 중국 당나라 때 왕발(王勃)이 지은 〈석가여래성도기〉에 송나라 혜오 대사 도성(道誠)이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주해'를 붙인 주해서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1253년(고려 고종 40) 새긴 목판을 분사대장도감에서 다시 새겨 찍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간행정보가 기록돼 있어, 13세기 중엽 분사대장도감의 운영과 역할 변화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蜜經)〉 한역본에 남송의 승려 혜정(慧定)이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책 끝부분의 발문과 간행기록을 통해 1373년(고려 공민왕 22) 은봉 혜녕의 주도하에 비구 정서의 발원, 공덕주 배길만(裴吉萬) 등의 시주, 심정(心正) 등의 판각으로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뛰어나다.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본의 불교 의식집이다. 1474년(조선 성종 5) 간경도감판본으로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해인사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이다. 문화재청은 "조선 성종대 역사와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왕실 발원판인 동시에 불교학 연구에도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엔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이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봉안한 법당으로, 불상 뒤 벽면엔 비단 바탕에 채색한 영산회상도를 후불탱화로 걸어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부재 간의 비례가 잘 잡혀 예술성이 높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전 건물"이라고 평가했다.


명승으로 지정된 창녕 관룡산 관룡사 일원.


보물로 지정예고된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보물로 지정예고된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

'지광국사탑'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복원

문화재청, 확정 결과 발표해
搭하중, 환경 등 고려해 결정

일제강점기 이후 제자리를 떠나 방황했던 비운의 탑 국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가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확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하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 내에 위치한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존처리가 끝난 지광국사탑의 복원 위치를 두고 그간 승탑의 원래 자리이던 승탑원에 보호각을 세운 후 그 안에 복원하는 방안과 법천사지 안에 건립돼 있는 유적전시관 내부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승탑원이 지형상 24톤에 달하는 지광국사탑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점과 보호각을 추가로 세워야 하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내진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지광국사탑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 복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광국사탑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에 세워졌던 고려시대 국사 해린(海麟, 984~1070)의 사리와 유골이 봉안된 승탑으로, 평면 사각의 전각구조이며, 화려한 조각과 뛰어난 장엄장식으로 역대 가장 개성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 오사카로 반출되는 등 10여 차례 옮겨지고 한국전쟁 중 폭격으로 파손되는 등 역사적 고난과 아픔을 겪어오다 2016년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지광국사탑을 완전 해체하여 대전으로 이송한 후 2020년까지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진행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올해 8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옥개석과 탑신석을 제외한 31개의 부재를 지광국사탑의 고향인 원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으로 이송을 하여 112년 만의 귀향을 기념하는 귀향식을 개최했으며, 이송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재들은 유적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지광국사탑이 복원될 원주 법천사지 전시관 전경.

부처님 전생 이야기 영어로 말하고 듣자

제15회 자타카 영어말하기 대회
1월 14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서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가 1월 14일 오후 1시 30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5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부처님 경전 내용을 친숙히 접하면서 글로벌 인재로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처님의 전생 설화를 담고 있는 본생담(Jataka)을 영어로 발표하는 자리다.

이날 행사는 1월 5~7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리는 지역 예선을 통해 선발된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본선 무대에 오르는 전국대회다. 전국 불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큰 축제의 장으로, 어린이 전법은 물론 세계를 향한 한국 불교의 미래인재의 토대를 닦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2-722-2206

임은호 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생명나눔 30년, 미래 30년 다시 만들어 가야죠”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12. 이사장 일면 스님 인터뷰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단체로, 생명나눔 문화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30살 청년이 되기까지에는 이사장 일면 스님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일정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참석해 희망등록을 직접 권선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일면 스님은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쉼 없이 달렸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긴 시간동안 그 누구보다 힘차게 달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2024년 갑진년(甲辰年)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목표로 장기 및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사업,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며 30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데 진력해왔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발돋움한 생명나눔은 매년 신규 회원 수를 갱신하며 발전을 거듭했고 어느덧 20만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불교계 최대 사회단체로 성장했다. 일면 스님은 2005년부터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Q 올해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입니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3월 ‘생명공양실천회’라는 이름으로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해보자는 몇몇 스님과 재가자가 뜻을 모았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제가 2005년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니, 저도 벌써 20여 년을 함께했네요. 그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와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 활동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 회원이 20만명에 달합니다. 제가 처음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만 해도 회원은 2000여 명에 불과했으니 수치만 봐도 엄청난 성장이지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눔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생명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Q 30주년을 맞아 눈여겨봐야 할 계획과 사업이 있을까요?

지난해 8월, 정현숙 후원회장을 중심으로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먼저, 기념식이 10월 1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그간의 발자취를 둘러보고, 감사를 전할 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마움을 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므로 곧 세부적인 사업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Q 지난 30년 동안의 발자취와 성과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불교계와 국민들 사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것이 가장 큰 성과겠지요.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자가 5만50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힘든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 것도 빠질 수 없습니다. 1200여 환자들에게 약 43억여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교육을 200여 차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의 희망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Q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규모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3년에만 총 32명의 환자에게 약 8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2024년에는 복지기관 발굴 및 온라인 모금 활동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연간 1억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모금 활동으로 지원금액을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꺼져가는 희망불씨를 되살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Q 이사장 스님께서 난치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스님이 장기기증 수혜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저는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었고, 또 종단의 주요 직책을 맡아 한창 바쁘게 일할 때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1998년, 앞으로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고 1년 동안 1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모든 것을 정리했을 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새 생명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남으로부터 덤으로 얻은 삶, 남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 발원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에 후원자들의 자비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에는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3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Q 생명나눔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장기를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시하며 내 것을 나누는 것은 불교의 근본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 또 소외계층에 내민 자비의 손길은 최고의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Q 현대불교신문도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는 대행 스님과도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대행 스님이 창간한 현대불교신문과의 인연 또한 소중히 생각합니다. 공동기획 기사, 환자치료비 모금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좀 더 의미있는 30주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지난 30년이 의미 깊었던 만큼 미래 30년도 기대가 됩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에서 설립했지만 종교와 이념을 초월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나눔으로써 참된 인류애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20만명이 넘는 회원수를 자랑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장기기증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희망등록 활성화와 더불어 실질적 기증을 독려하는데 힘을 쏟고자 합니다. 또 난치병 환자 치료비를 위한 십시일반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눔입니다. 생명나눔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30년에 대한 포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부터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 희망으로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행복을 나눠주고 더해줍니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자와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새해 덕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입니다. 용감하고 강인한 동물인 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난해 지나간 일은 뒤로 하고 용 해의 큰 힘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합니다. 후원자와 독자들께 부처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일면 스님은…1959년 해인사에서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승가대학,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으며 조계종 포교부장, 사회부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교육원장, 군종특별교구장, 동국대 · 광동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이다.



**“생명나눔 30년.
세상의 희망과 생명을 함께
나누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월 12일 동국대서 30주년 기념식
다가올 30년도 희망 세상에 나눌 것
현대불교와 30주년 함께 맞아 기대도**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하는 모금 캠페인

나눔의 행복



소중하고 특별한 날, 함께하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세서비스 Hometax. 국세청 홈텍스 → 세액공제

기부자 → 난치병 어린이 환자 따뜻한 손길

기부자가 받는 혜택은?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며,
본부에 전화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문 의 02-734-8059

후원계좌 농협 053-17-001346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첫 방한 캉쎄르 린포체, 부산서 대중법문

1월 2일 홍법사서 불자들 만나
탐진치 삼독과 극복 방안 제시
비유·이야기 곁들여 이해 도와
"원하는 걸 얻지 못해도 축복"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대중법문 하는 캉쎄르 린포체.


홍법사에서 봉행된 캉쎄르 린포체 특별 초청법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제4대 종파 중 가장 큰 법맥인 겔룩빠 전승의 제8대 환생자 캉쎄르 린포체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불자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가운데, 불도(佛都) 부산에서 대중법문을 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캉쎄르 린포체는 1월 2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봉행된 린포체 초청 특별법회에서 400여 대중과 만났다. 홍법사의 정기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대신 마련된 법석에서 캉쎄르 린포체는 얼마 전 출간한 저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법에 나섰다.

캉쎄르 린포체는 1시간이 넘는 법문을 통해 탐·진·치 삼독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린포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슬픈 것은 탐욕 때문이다. 탐욕은 집착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집착은 자신을 위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린포체는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비유와 이야기를 활용했다. 집착을 설명할 때는 '복권'을 예로 들었다. 린포체는 "100만달러 복권이 당첨됐을 때의 기쁨, 반대로 당첨된 복권을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의 크기는 왜 똑같지 않고 잃어버린 슬픔이 더 큰지 떠올려보라"며 "행복감보다 불행감이 더 큰 이유가 집착 때문이다. 100만달러에 대한 집착이 큰 불행감을 가져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포체는 하나의 일화를 더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린포체는 "어느 나라의 왕이 한 농부에게 해가 지기 전까지 그가 걸은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했다. 다만 반드시 성으로 돌아와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며 "신이 난 농부는 많은 땅을 갖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지만 너무 멀리간 탓에 성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 농부를 죽인 건 조금만 더 갖고 싶은 욕심"이라고 말했다.

린포체는 이어 "농부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다.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고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도 집착과 탐욕은 갖지 말라고 하셨다"고 힘줘 말했다.

린포체는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계로 △자신이 가진 좋은 점과 그로 인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할 것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아침저녁 짧은 명상 실천 △영원한 건 없다는 무상에 대한 이해를 제시했다.

린포체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조만간,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는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 경험하는 고통이나 슬픔, 불행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캉쎄르 린포체는 제8대 환생자다. 제7대 린포체는 지금의 달라이라마 환생자를 찾아낸 세 명의 수행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린포체는 지난해 7월 달라이라마로부터 600년 전통의 규토 승원의 부승원장인 라마움제로 임명됐다.

락서암, 중·고교생 18명 장학금 수여

제5회 장학금 전달식…총 1270만원 지원

청소년과 학생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락서암(주지 수월 스님)이 지난해 12월 27일 대웅전에서 제5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전달식은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 법화종 원로의원 진파 대종사, 부산종무원장 법경 스님, 총무국장 용암 스님, 감찰국장 지오 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성림 스님, 춘제 스님, 혜연 스님, 법성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락서암은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대학생 9명에게 각 100만원, 고등학생 5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4명에게 각 30만원을 수여했다. 18명의 학생들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총 1270만원이다.

주지 수월 스님은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로 5회째를 맞아 이제는 군대를 다녀왔다고 인사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다.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여러분은 육바라밀 중에 인욕바라밀을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지내야 한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원하는 것은 언젠간 이루어지게 돼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이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면 그게 나라를 위하는 일등공신이 되는 길"이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원로의원 진파 대종사는 "오늘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다. 남을 위한다는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행복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락서암 주지스님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고마운 분들이다. 이런 공덕으로 세상을 밝히고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시라"고 법문했다.

또한 수월 스님은 장학사업을 후원하는 한빛마음회 임원과 보현회 임원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치하했다. 한빛마음회는 이전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신도들이 수월 스님의 장학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뜻을 모아 지난해 6월 자발적으로 결성한 장학금 후원단체다.

한편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은 평소 인재불사를 위한 수월 스님의 원력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실상문학상 2대 운영이사장에 심산 스님

혜총 대종사 증명법사 추대
"함께한 족적 영원히 기록돼"
문학상 대상 차달숙 · 김윤선


실상문학상 수상자들과 혜총 대종사, 심산 스님, 차정연 협회장.

불교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산불교계 문학인 양성에 기여해온 실상문학상 제2대 운영이사장에 심산 스님이 취임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는 지난해 12월 28일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실상문학상 운영이사장 이·취임식 및 제26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1988년 8월 원광 스님이 창립을 주도해 탄생한 부산불교문인협회는 그해 12월 〈실상문학〉 창간호를 발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가 1998년 부산지역 문인들을 지원하고 문학 발전을 위해 실상문학상을 제정한 뒤 초대 운영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를 통해 25년간 200여 명의 문인에게 실상문학상을 수여하고 3억원이 넘는 상금을 지원했다. 혜총 대종사는 이 같은 활동을 후학인 심산 스님에게 맡긴 것이다.

이날 능지 스님과 함께 부산불교문인협회 증명법사로 추대된 혜총 대종사는 "실상문학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학지로 성장한 데는 회원 여러분의 탁마와 고뇌의 시간이 응축돼 만들어진 결과"라며 "소승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족적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2대 운영이사장으로 취임한 심산 스님은 "그동안 문인협회를 이끌고 지도해주신 혜총 큰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차정연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며 "그동안 큰스님께서 이루신 성과를 바탕으로 임원진, 회원과 함께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제26회 실상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차달숙 시인과 김윤선 수필가가 공동대상을 수상했다. 차달숙 시인은 1999년 수필, 2008년 시, 2013년 시조 시인으로 등단해 부산문학인협회장을 맡고 있다. 부산문학상 대상, 한국국보문학 대상 등을 수상하고 시집 〈별들에게 묻다〉 〈회화나무〉 등을 펴냈다. 김윤선 수필가는 2007년 〈수필시대〉로 등단해 동구문화예술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제7회 사계 김장생 문학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하고 다수의 작품을 냈다.

윤호섭 기자

늘기쁜마을, 사회복지사례 발표회 개최

12월 27일 연구원 설립 일환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환희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사진〉 사회복지연구원 설립 일환으로 마련된 발표회는 법인이 추구하는 가치인 자비·지혜·원력의 대표적인 산하기관의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내 전파하기 위해 열렸다.

발표회에서 윤기혁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교사회복지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이어 법인 산하시설에서 근무하는 류우진 환희노인요양원 사무국장이 '코로나19 대응 사례', 손은주 두송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개입 사례', 김호정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독거남성어르신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관계망 강화 프로그램', 나은미 두송지역자활센터 담당자가 '자활기업 육성 및 지원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대표이사 지현 스님은 "25년 전 첫 걸음을 내딛은 늘기쁜마을이 어느덧 청년이 됐다. 여러분 노력 덕분에 시설과 직원이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활동을 인정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사회복지연구원 설립을 위해 더욱 탄탄하게 준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사찰고급연등
자동승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 치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010-5340-7941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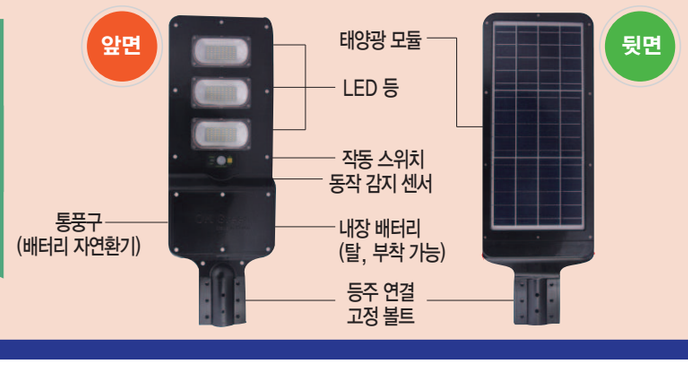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후







제품 세부 소개


자동 승 하강장치 설명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의 장점
1. 발원 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 보입니다.
3. 법당 내 구조와 면적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이며 사후관리도 책임집니다.

자동 승 하강장치 시공시 많이 하는 질문
시공사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안전성입니다. 시공전 현장 방문하여 현장 수치에 맞는 도면 작업 후 연등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현장에 맞는 수치를 계산하여 계산치의 최대 용량에 60%를 넘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파동식 가로등
어둠을 밝히는 자비광명 가로등은 경내외에 전기공급 없이 자체 발전으로 켜지는 가로등입니다. 자비광명 가로등으로 경내외에 큰 공덕의 자비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가로등불빛아래 풍경을 달아 불사에 동참하신분들의 성함을 넣어서 달아드리니 오랫동안 기도와 소원을 이루리라 사료됩니다.
귀 사찰에 귀감이 되는 불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혜암 대종사 유훈 이어가겠습니다”

해인사, 혜암 대종사 추모 다례
열반 22주기 맞아 대적광전서
원각 스님, 문도, 신도 등 참석
2001년도 대종사 봉축법어 합송
“수행 강조한 가르침 받들겠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법보종찰 해인사는 지난해 12월 22일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혜암 대종사 부도탑을 참배하는 대중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혜암당 성관 대종사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혜암당 성관 대종사 열반 22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 다례재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전계사 무관 스님, 전 원로의장 세민 스님, 혜암 문도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신도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다례재에 참석한 대중스님들과 불자들은 해인사 비림에서 혜암 대종사의 부도전을 참배했다. 이어 죽비 삼배에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부도탑돌이를 했다.

대적광전에서의 추모 다례재는 거불, 방장스님 헌향 및 헌다, 종사 영반, 추모 입정, 육성 법어, 대중 헌화, 행장 소개, 문도대표 인사, 공지사항, 회향 게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다례재에 참석한 대중 스님들은 2001년 부처님 오신날 법어를 합송하며 혜암당 성관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 대표 성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혜암 스님은 항상 인욕 수행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고 관세음보살과 같은 대자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행을 많이 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라며 “저희 문도들은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혜암 문도회는 혜암당 성관대종사 22주기 추모다례재를 맞아 해인사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혜암당 성관 대종사는 1920년 음력 3월 22일,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1946년 합천 해인사에 입산 출가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하고, 성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자운·우봉·보문·도우·법전·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했다.

2001년 12월 31일, 음력 11월 17일 오전,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공부 잘하라’고 당부한 후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편안히 열반에 들었다. 세수는 82세, 법랍은 56년이다.

“갑진년엔 가정에 불보살 가피 가득하길”

금산사 · 선운사 해넘이 해맞이 법회 봉행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와 제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계묘년 한해를 정리하고 갑진년 새해 희망을 기원하는 해넘이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서해 바다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김제 망해사에서 해넘이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해넘이 해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갑진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해지기를 축원드린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전북종무원·아중요양병원 MOU

1월 4일 협약 체결식 개최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사)붓다가 아중요양병원이 상호협력하여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 스님)과 (사)붓다, 전주 아중요양병원(원장 장원욱)은 1월 4일 아중요양병원 세미나실에서 지역주민들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 봉사와 의료봉사를 함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사)붓다가, 아중요양병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태고종 종도들과 (사)붓다 회원들과 지역사회 건강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사암연,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 재개한다

1월 18일~22일 KBS 울산홀

울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자비도량참법 5일 기도법회를 재개한다.

오는 1월 18일~22일까지 매일 오후 2시 KBS 울산 홀에서 열리는 자비도량 참법 5일 기도법회는 자비도량참법 10권 38장을 5일에 걸쳐 독송하게 된다.

나의 잘못과 남의 잘못을 모두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고 모든 중생의 죄와 업장마저도 내 허물로 삼아 참회하는 자비도량참법 기도법회는 울산불교를 이끌어 갈 신심 있는 원력불자들이 동참한다.

불자들은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한 참회의 절을 한다.

울산불교사암연합회 관계자는 “일념으로 지극정성 염원하다 보면 소원성취와 재난을 면하는 공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14년간 이어진 익산 관음사 관음회 원력

‘자비도량참법 기도’ 정진 지속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권유로
참회와 불교중흥 발원하며 정진


익산 관음사 관음회 회원들.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 스님) 관음회가 14년간 매월 1차례 모여 참회 기도를 봉행하고 있어 지역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익산 관음사 관음회(회장 김덕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관음재일이면 관음사 법당에 모여 자비 도량 참법 기도를 봉행하고 있다.

익산의 대표적인 전법 도량인 관음사에 현 주지인 덕림 스님이 부임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관음회의 기도는 매회 3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관음회장 김덕순 불자를 비롯해 이명옥 불자의 인례로 봉행되는 관음회 기도 정진은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3시간 정도 진행된다. 초기에는 3일간에 걸쳐 진행됐으나 10년을 넘기면서 동참 불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현재는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만은 잃지 않고 있다.

관음회원들이 처음 정진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이웃 종교에 비해 열악한 조건을 가진 익산의 특성을 고려해 불자들이 단합되고 화합된 모습으로 정진을 하며 지역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정진하라는 현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의 권유가 계기가 됐다.

초기 3년간은 〈법화경〉 독송 법회를 진행했고 1년간은 〈금강경〉 독송 법회를 진행했으나 10년 전부터는 자비도량참법을 바탕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절을 하는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참회 법회를 통해 불자들 스스로 현생에서 쌓은 죄업을 씻어 버리고 관음사가 지역의 전법 도량으로 발전하고 불교가 왕성했던 옛 익산지역 불교를 회복하는 염원을 안고 정진하고 있다.

김덕순 회장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10년 넘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을 지키는 도반들이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 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관음사는 작은 도량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사격을 갖춘 도량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자기 수행과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하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밀양 표충사, 삼성각 낙성·탱화 점안

지난해 12월 28일 법회 봉행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 스님)가 삼성각 낙성법회와 칠성탱화, 독성탱화, 산신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지난해 12월 28일 표충사 삼성각에서 봉행된 낙성법회와 탱화 점안법회는 통도사 백련암 감원 원산 스님을 증명 법사로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여법하게 봉행됐다.

증명법사 원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념으로 기도해 중국 황제의 꿈을 그린 화공 장승요의 일화를 소개하고 “내 생명을 다 바쳐 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내와 우주가 하나가 됐을 때 지금 장승요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절대 경지까지 이르렀을 때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출강 및 통신 2024학년도 제33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양성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3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4년 2월 20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벽산 혜암

포교원장 법전 법현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진각

강원종무원장 영명 서울종무원장 감우 총무부장 진공
경기종무원장 혜암 군산종무원장 덕일 재무부장 지안
충청종무원장 진산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전라종무원장 덕운 경남서부종무원장 진성 연화부장 정해
경기서부국장 보성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불교 가르침 노래로…밴드 보컬은 스님

소수민족 출신 모인 다르마 밴드
기타·키보드·싱잉볼 연주자 구성
중국 대도시 순회공연 성공 개최
수익금 다양한 교육 활동에 회향

박영빈 객원기자


자신의 밴드와 함께 밀라레빠의 게송을 노래하고 있는 바로 툴쿠. 사진출처=신화통신

불교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는 게송을 현대적 노래로 바꾸어 부르는 스님 밴드가 중국에서 화제다. 지난해 12월 28일 신화통신은 '다르마 밴드'를 이끄는 메인 보컬 '바로 툴쿠'의 이야기를 특별보도했다.

다르마 밴드는 4~5명의 편성으로, 몽골족과 만주족의 기타리스트, 티베트족의 키보드 연주자, 한족의 싱잉볼 연주자 등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밴드를 이끄는 메인 보컬은 티베트 불교에서 고승의 환생자로 인정 받은 바로 툴쿠 텐진 도르제 스님이다. 바로 툴쿠는 "내가 8살 때 디궁 까규파의 종정인 충창 린포체께서 직접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다고 기억한다. 곧 나는 양리강 사원의 6번째 바로 툴쿠의 환생으로 인정받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바로 툴쿠는 어렸을 때부터 환생자로서의 소양을 위해 전통적인 강원 과정에 따라 불경과 논서들을 배웠으며 표준 중국어와 영어와 같은 현대적 교육을 받았다. 또 탱화조성이나 작법무, 범패 등의 예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음악과 관련된 예술에 소양이 있었던 바로 툴쿠는 평소에도 사원에서 배운 게송들을 전통적인 음률로 노래하는 것을 즐겼다며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가장 즐겨 부르는 게송은 11세기경 티베트의 대성취자인 밀라레빠의 증도가이다. 흔히 〈밀라레빠 10만송〉으로 불리는 이 게송들은 티베트의 사찰과 민간에서 자주 민요처럼 불리며 지난 2021년에는 중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됐다.

바로 툴쿠는 "2004년에 처음 〈밀레라빠 10만송〉을 배웠다. 민간에 전승되는 게송들은 아무래도 개사되거나 곡해되어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바른 게송은 그 분량이나 내용이 심오해서 사원이나 수행자들 사이에서만 전해졌다. 나는 바른 게송을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며 밴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2006년 전통적인 밀라레빠 10만송 구술하기 위해 라싸를 찾았던 바로 툴쿠는 당시 촬영을 위해 티베트에 와있던 중국의 유명배우인 천쿤을 만났다. 불자였던 천쿤은 바로 툴쿠의 마음에 큰 감명을 받아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첫 앨범이 발표됐다. 이후 종단 차원에서도 바로 툴쿠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다르마 밴드'가 탄생했다. 바로 툴쿠의 밴드는 티베트의 라싸 외에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에서도 중국의 주요한 대도시에서 라이브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최근 중국 내 순회공연을 마친 밴드는 수익금으로 불교전문학당, 탱화교육센터, 무료 어학당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로 툴쿠는 "공연이나 녹음이 없을 때엔 나도 한 사람의 출가자로서 후학들을 위해 강단에 서고 있다"며 웃어 보였다.

바로 툴쿠는 "장래에는 불교고전을 좀 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하기 위한 번역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능하면 해외에서도 나의 방식으로 전법활동을 펼치고 싶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泰, 몽골불교 전통 의식무 '참' 사진전 성료

사진작가 제타니파트 케트프라딧 개인전


몽골 불교 의식무 참. 사진출처=제타니파트 케트프라딧

지난해 12월 25일 미술 전문지 '스티얼 월드'는 태국에서 열린 몽골불교 전통 의식무 사진전 성료 소식을 전했다. 현지 예술계는 이번 전시가 몽골불교와 함께 전해오던 예술의 복원이 몽골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태국 방콕 리버시티 1층 RCB에서 '사람과 그들의 세계: 참, 신의 춤' 사진전이 열렸다. 주태국 몽골 대사를 포함한 12개국의 대사가 참석하여 개막식을 알린 사진전은 사진작가 제타니파트 케트프라딧의 개인전이다. 작가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몽골 예술과 문화적 측면을 들여다보는 주제로 몽골불교에 전해지는 전통 의식무 '참(tsam)'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서 몽골 가면 박물관의 작품과 스님들이 전승해온 참의 영상을 단독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시를 위해 몽골 3대 사원 중 하나인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 몽골 가면 박물관 및 몽골불교에서 깊은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 그는 "아마르바야스갈란트 사원을 방문하고서 불교의식무인 '참'에 관심을 가졌다. 불교 가면극은 티베트에 뿌리를 둔 불교가 몽골에 전해지면서 생겨난 독특한 예술이다. 불교를 몽골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부드러운 전략이었다"며 촬영의 주제로 참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또 "몽골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겔룩파는 전통적으로 교학의 철저한 연찬과 엄격한 계행을 종지로 삼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참은 도적적인 교훈을 모두에게 쉽게 전하는 가면극"이라며 단순히 가면이나 화려한 의상뿐만 아니라 참 속에 들어있는 교리적 배경도 중요하게 보아야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몽골불교는 각 사원마다 각기 다른 참 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공산혁명과 1937년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사원과 성보들이 대거 파괴되고 출가자들이 살해당하면서, 그 명맥이 극도로 쇠퇴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동남아 3국 불교 지도자, 평화 협력 '결의'

메콩강 환경 지키기 위한 협력
마음챙김 실천 지속 다루기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 지도자들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협력과 관계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세계 평화를 위해 모인 3개국 불교계의 동향을 보도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불교 지도자 회의'는 지난 2018년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시작된 이래 3국간 불교의 전통적인 관계, 연대 및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12월 24일부터 나흘에 걸쳐 각각 이틀씩 호치민시와 럼동성에서 개최됐다. 주제는 '환경 관리에 대한 불교의 견해: 지속 가능한 세계 육성'으로 3개국의 평화와 조화 및 환경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불교의 현대적 역할에 집중했다.

베트남 내무부 차관이자 정부 종교위원회의 부국장인 부치엔 탕 박사는 개회식에서 "불교는 동남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개선하며, 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또한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유사성은 모두 각국 간에 공유한 불교적인 가치에서 비롯됐다"고 불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베트남불교 승가집행위원회의 위원장 틱 티엔 논 스님은 "이번 회의는 특히 3개국의 생활 환경에 필수적인 메콩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악화와 기후변화에 대하여 불교계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약속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환경, 빈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3개국의 불교지도자들이 긴밀히 협력해야한다"며 각국 불교계의 관계 강화를 촉구했다.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발표하고 있는 틱 티엔 논 스님. 사진출처=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캄보디아를 대표한 봉킴손 스님은 교육, 문화, 인도주의를 새로운 관계의 기초로 삼고 서로에 대한 자비와, 세상에 대한 자비를 키울 것을 요구했다. 나흘간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3개국의 불교대표단은 상호의존의 연기법 안에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속 가능한 생활, 이를 가능케 하는 마음챙김에 대한 문제와 서로의 생각을 토의했다. 회의 끝에 각국의 불교대표단은 "불교의 물적, 정신적 자원을 공유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플랫폼 역할로써 컨퍼런스의 정기적인 만남이 중요함을 이해했다"고 결의했다.

이번 결의를 통해 3개국은 불교 지도자 회의를 통해 상호의존성의 이해,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 모색, 마음챙김과 단순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삶 안내, 마음챙김 실천과 상호 연결을 통한 행동고취, 마음챙김을 통한 현명한 소비 촉진, 다양한 대중을 위한 불교 자원개발, 환경에 대한 다문화 대화 장려 등 6가지 하위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잠양 런던 불교센터 신년 특별법회 봉행

달라이라마 특사 양텐 린포체 초청

지난해 12월 29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영국 잠양 런던 불교센터의 신년 특별 법회 봉행 소식을 전했다.

런던 남동쪽에 위치한 잠양 런던 불교센터는 1978년에 런던의 램버스 구에서 티베트 출신의 스님인 라마 툽텐예셰와 라마 쇠파 린포체에 의해 설립됐다. 1995년부터는 램버스구의 구법원 건물을 매입하여 사찰로 이용하고 있다. 현재 350명 가량의 회원들이 수행정진하고 있으며 현재 네덜란드 출신으로 티베트 전통 강원교육을 마친 게세 남닥 스님이 상주 지도법사로 지도하고 있다.

양텐 린포체는 1월 13~15일 〈까딴의 심오한 열가지 보물〉, 까딴 4본존(석가모니, 관세음보살, 따라보살, 부동명왕) 관정, 〈연기 찬탄문〉을 주제로 법문할 예정이며 이중 두 개의 법문은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만날 수 있다. 이후 린포체는 런던 브루넬 대학 심리학 교수 엘레나 안토노바 박사와의 대담회를 통해 명상과 의식에 대한 불교와 과학적 관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잠양 런던 불교센터 신년 특별법문 홍보사진. 사진출처=잠양 런던 불교센터

잠양 런던 불교센터는 "양텐 린포체의 법문에 이어 독일출신 게세마 켈상왕모 스님의 강의도 준비돼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종무원

승정 금 용

중앙원로회
의원 금 용
의원 남 파
의원 설 봉

중앙종회
의원 지 공
의원 일 연
의원 봉

지방원로회
의장 금 명(태평사)
부의장 금 용(장원사)
의원 원 명(학림사)
의원 도 수(봉정사)
의원 성 천(흥국사)
의원 설 봉(관음사)
의원 남 파(오봉사)
의원 현 오(학천사)
의원 수 진(용화사)

종무원
종무원장 월 인
총무국장 심 일
교무국장 선 주
재무국장 명 휴
규정국장 도 진
종무주임 자비심

지방종회
의장 도 안
수석부의장 여 허
차석부의장 도 우

지공 일진 봉양 휘현 용봉 산허 휴
원장 지원 법연 혜승 보법 도덕 도영
의원 일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팩스 062)381-0944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지 수 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전화 061-473-5122

2000년 전 남인도 불교미술 정수를 만나다

국립중앙博 '스투파의 숲' 전시
오는 4월 14일까지 기획전시실
인도 불교미술품 97점 등 선봬
남인도 문화재 한국 소개 '최초'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스투파 장식 장엄물 '싯다르타, 머리카락을 자르다'의 모습. 3세기 말 조성됐다.

스투파(Stūpa)는 불교에서 부처나 훌륭한 스님의 사리를 안치하는 조형물이다. 솔도파(率堵婆)의 약칭인 탑파, 탑은 모두 스투파에서 유래한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당시 제자들과 신도들은 불사리(佛舍利)를 8등분하고 8개의 불탑을 만들어 봉안했다. 아소카왕 때 이 불사리를 재발굴해 8만4000개의 탑에 분납했고, 이것이 불교도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에도 많은 스투파가 건립됐고, 이는 불교의 대표적 예배와 신앙의 대상이 됐다.

탑파 신앙은 불교의 전래와도 관련이 있다. 남인도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기원전 3세기 중엽으로 당시엔 아소카왕이 인도 전역에 부처님의 사리를 보내 스투파를 조성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조성된 스투파와 불교 관련 유산들은 불교가 어떻게 전래·정착됐는지를 알게 하는 자료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세워진 남인도 스투파와 불교미술의 정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오는 4월 14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 특별전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남인도 고유의 문화와 불교가 만나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남인도 미술 세계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 200여 점이 전시된다. 남인도 불교문화유산이 한국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특별전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지난해 7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한 '나무와 뱀:인도의 초기 불교미술'의 한국 전시다. 해당 전시에는 인도 데칸고원 동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남인도 미술이 소개되며 뉴델리국립박물관 등 인도 12개 기관, 영국, 독일, 미국 등 4개국 18개 기관의 소장품이 출품됐다. 이 중에는 발굴된 후 한 번도 인도 밖으로 나간 적 없던 유물이 대거 포함돼 있다.

생명력 가득한 남인도 미술 세계에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한국의 특별전은 두 가지 숲으로 이뤄져 있다.

첫 번째는 '신비의 숲'이다. 풍요로운 자연환경 속에 뿌리내린 남인도 고유의 문화에 불교가 스며들면서 이색적인 숲이 탄생한다. 인도인들은 숲 속의 정령이 풍요를 가져와 준다고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무와 대지에 깃든 신을 남성형은 약샤, 여성형은 약시라 불렀다. 자연의 정령이던 이들은 불교가 전해지면서 스투파 장식의 조각으로 등장한다. 자연의 정령과 불교의 신들이 어울려 살아가던 생명의 숲을 표현하기 위해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스투파의 봉분을 형상화한 둥근 원들로 순환의 질서를 형상화한 공간을 연출했다.

두 번째는 '이야기의 숲'이다. 북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는 남인도 특유의 생명력 넘치는 문화와 만나 북쪽과 달리 활기찬 분위기로 바뀐다. 무엇보다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그려진 남인도 스투파의 규모에서 뿜어져 나오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한 점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한 상징과 서사로 이루어진 그의 인생 드라마가 돌 표면에 조각되어 드라마틱한 인도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였던 인도에서 일어난 문화의 흐름과 불교 신앙의 전파가 남인도 고유의 미술에 어떤 자극과 상상력을 제공했는지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화엄사 사경행자들 수행 결실 '한자리에'

화엄사 사경원, 제2회 회원전…2월 25일까지 화엄사성보博서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는 제2회 화엄사전통사경원(원장 김경호) 회원전 '화엄동천경필사(華嚴洞千經筆師)'를 2월 25일까지 화엄사 성보박물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1월 6일 개막한 이번 전시회는 화엄사 전통사경원의 두 번째 회원 전시회로, 전통사경원에서 지도받은 회원 40명이 참여해 50여 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회에 앞서 주지 덕문 스님은 "화엄사 전통사경원이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이신 김경호 선생을 모시고 1300년 전통사경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화엄도량에 사경원을 개원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신라백지묵서화엄경의 맥을 계승한 경필사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것은 사경행자들의 견실한 초발심과 김경호 선생의 훌륭하신 지도편달이 어우러진 인연공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사경의 대중화를 위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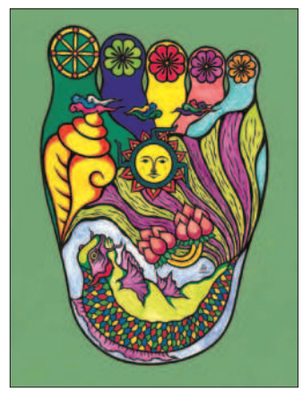
전시회는 김경호 원장(사경장)의 연구반과 조미영 박사가 지도하는 기초반, 그리고 경기도 의왕 용화사분원의 박경빈 선생이 지도하는 회원들의 작품들이다.

김경호 사경장은 축사를 통해 "사경은 기본적으로 불교의 삼보 중 하나인 법보(法寶), 즉 불교 경전을 제작하고 장엄하는 일이다"며 "성인의 말씀을 문자로 옮긴 경전은 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최상의 재료와 도구를 개발하여 장엄하게 되고, 가장 여법한 형식과 양식 및 기법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신성한 예술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방세계 부처님, '현대적 민화' 재현하다

갤러리 한옥, 오혜재 기획전



오혜재 작가의 작품 '불족적'

현대적으로 해석된 민화로 재현된 부처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갤러리 한옥은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오혜재 작가의 기획전시 '걸었던 자리마다 별이 빛나다'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3회 갤러리 한옥 불화·민화 공모전'에서 입상한 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현대적 불교 민화 20여 점을 선보인다.

오 작가는 "숫자 '10'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완전함'을 상징하며, 특히 불교에서 '10'은 '무한과 자유, 구원, 완전'을 의미한다"면서 "이번 전시는 갤러리 한옥 공모전 입상자로서 거머쥔 기회이자 '독학 예술가'로 활동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마련한 뜻깊은 자리"라며 "지난 10년간 예술가로서 걸었던 자리마다 빛을 밝혀준 나의 별들을 조명하면서, 앞으로의 10년 동안 보다 원숙한 예술가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이번 전시가 귀중한 디딤돌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스스로를 '독학예술가'로 칭하는 오 작가는 이화여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2014년부터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고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왔다. 2019년 홍콩 아시아 컨템퍼러리 아트쇼를 통해 해외에도 작품을 선보이면서, 국내외 다양한 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싱가포르 아시아예술협회(AAA) 주최 '코로나19 국제 자선 그림 공모전'에서 아티스트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2021년 이탈리아 현대작가센터(COCA) 주최 '제3회 COCA 국제 공모전' 1차 선정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에는 〈제3회 갤러리 한옥 불화·민화 공모전〉 특선 수상, 독일 기후예술컬렉션(CAC) 선정 작가, 홍콩 〈아웃사이더 아트 VR 전시회〉 2등상 수상을 달성했다.

신중일 기자

동체대비, 불교 공동체에 어떻게 구현되나

금강대 불문연, 1월 12일 제3회 온라인 학술세미나

동체대비 정신이 불교 공동체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고승학, 이하 불문연)은 1월 12일 오전 9시 30분 금강대 국제회의실에서 '동체대비와 불교 공동체'를 주제로 제3회 온라인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병욱 고려대 강사가 '천태종의 불교공동체 정신에 대한 재검토-삼대강령과 삼대지표를 중심으로'를, 지혜경 연세대 철학연구소 연구원이 '현대 한국 불교의 대중화 운동- 상월조사와 광덕스님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아리조나 대학의 알버트 웰터(Albert Welter)는 '세속화 시대의 불교: 동아시아적 관점'을, 도미닉 스카란젤로(입정교성회)는 '〈법화경〉의 일승과 종교 간 대화에 관한 입정교성회의 이해: 종교적 포용주의의 모호성과 21세기 종교적 다원주의에 대한 전망'을 각각 발제한다.

발표자료는 사전에 배포되며, 1월 3일부터 9일까지 메일을 통해 사전 질문을 접수 받는다. 자료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후, 공유폴더에 접속해 내려받을 수 있다.

금강대 불문연은 동아시아 불교의 시대정신을 천태종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와 관련해 논구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왔다. 2021년 12월에는 '동아시아 불교도들의 시대인식'을 주제로 2023년 2월에는 '삶의 형식으로서 불교'를 주제로 각각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 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동진, 오심, 동주
만초, 항조, 수진행
감 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77번지
전화 055)372-3722 팩스 055)372-3723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성 주
사부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대원불교학술총서11)마음을 만드는 뇌의 구조	문일수	운주사
2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7	억울한 누명:김성철 교수의 불교시 모음	김성철 시집	오타쿠
3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8	치유하는 유식읽기(심리학의 눈으로 새롭게 풀이한 유식30송)	서광스님 강의	공간
4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9	요가:완전한 건강의 길	BKS아헹가	선요가
5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10	죽음을 철학하는 시간(죽음명상)	이일야	불교신문사

책세상

선불교 장대한 흐름을 꿰뚫다



에세이 선종사

보경 지음/불광출판사 펴냄

3만원



금정총림 범어사 금어선원서 정진 중인 스님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선(禪). 사전에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불교수행법'이라고 정의된다. 사전적 정의로는 한 줄로 돼 있지만, 인류사에 가장 오래된 마음 수행법을 규정하고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하물며 화두, 공안, 선문답 등 한문으로 된 전문 용어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한다. '선은 어렵다'고.

어떠한 분야 개념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하면 좋은 것은 역사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부처님 일대기와 불교사를 먼저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선불교도 마찬가지다. 대체 선불교는 어떻게 태동했고, 어떠한 사상적·수행적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를 알게 되고 이해한다면, 선에 대한 접근이 쉬워질 것이다.

송광사 탑전에서 주석하며 글을 쓰고, 법문하고 있는 보경 스님이 내놓은 〈에세이 선종사〉는 선의 역사를 파악하는 좋은 불교 대중서다.

이 책은 부드러운 에세이 형식으로 선불교의 역사를 풀어내며 우리를 선의 세계로 안내한다. 인도의 베다와 우파니샤드 사상에서 출발하여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를 거쳐 중국불교, 한국불교에 이르는 장구한 사유의 파노라마를 생생하고 명료한 한 줄기 선종사로 재구성해 낸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과연 몇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실참까지 해볼 수 있겠는가. 불교사는 차치하고라도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참선하는 출가자 외에도 참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선종사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중략) 만약 책 한 권으로 불교와 선종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가능할 수만 있다면 불교와 선종의 공부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이는 나의 오랜 갈망이기도 하다.

–서문 중에서

고양이 에세이 3연작 보경 스님
이번엔 선종사 에세이로 돌아와
고대 인도부터 한국 선불교까지
장구한 3000년 선종 역사 조명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고양이를 읽는 시간〉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 고양이 에세이 3연작으로 한국불교 최고의 에세이스트라는 찬사를 받은 보경 스님은 사실 누구보다 깊이 선 수행과 불교 공부에 천착해 온 수행자이자 학자이다. 갓 스물이 되던 해에 출가한 이후로 지금까지 40여 년을 선에 매달려 왔다. 선방에서 참선하면서 송광사 800년 산문을 연구하기도 했다.

서문에 밝힌 대로 선종사를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보경 스님의 갈망이자 문제의식이었다. '입을 열면 그르친다'는 말이 강령처럼 받들어지던 시절, 참선하면서 든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하고자 많은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선명하게 와 닿는 책이 없었던 지난날을 떠올리며 보경 스님은 훗날 선 공부하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써 내려갔다고 한다.

선에 대한 보경 스님의 탐구가 특별한 것은, 선의 안팎을 넘나들며 주변의 여러 사유를 두루 살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부인으로서의 태도가 책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선불교는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에 맞게 각색하고 변용한 불교이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불교만을 다루지 않는다. '베다-우파니샤드-아비달마-중관-유식'으로 이어지는 고대인도의 사상사 흐름을 먼저 이야기한다. 이는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의 근본이 무엇이며, 중국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아야 중국불교의 탄생과 변화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고대사상과 문화, 유교와 도교, 역경사, 불성사, 선종사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마침내 한국선불교의 전개로 마무리된다. 보경 스님의 말 대로 지정학적으로는 인도에서 중국, 한국으로 이어지는 붓다로드(BUDDHA-ROAD)고, 중국에 전래돼 고려 지눌까지 전해지기까지 3000여 년의 타임로드(TIME-ROAD)를 조망해낸 것이다.

보경 스님은 이 책에 대해 "나의 출가 40년의 정리이자 결정판"이라고 자평했다. 이는 "공부는 반드시 빛을 발할 때가 있다는 믿음이 이날까지 나를 지탱해 준 힘"이었다는 스님의 원력이 기반이 됐기에 가능했다.

〈에세이 선종사〉에는 만 권 독서와 불교의 인문학적 해석을 평생의 일로 삼아 정진해 온 보경 스님만의 연륜이 녹아 있다.

책 속으로

불교가 인도전통의 베다사상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동일한 토양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시간이 달라졌다고 하여 훈습된 사상이 소멸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베다의 전통은 브라흐만과 아트만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시설되고 이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견지한다. 하지만 불교는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대신 경험적이고 현상적인 영역을 일체법이라 하여 오온·십이처·십팔계·십이연기 등의 기본교설을 세웠다. 이는 고정된 실체로서가 아니라 인연화합하는 연기적인 관점에서 존재와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입장이었다. **–30~31쪽**

〈반야심경〉은 서두에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괴로움에서 건넜다"라고 시작한다. 오온이 공한 것을 보는 것이 큰 깨달음이다. 우리가 하는 공부나 수행이 결국은 오온이 공한 것임을 알기 위해서다. 나라는 존재가 오온의 화합물이며 그 다섯 요소 하나하나도 다시 여러 요소로 분해되어 설명된다. 오온은 불교초기교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기본범주이다. **– 60쪽**

불경의 번역 자체가 격의의 과정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언어구조나 문화가 전혀 다른 두 언어의 개념을 일치시키는 해석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역경을 알려면 격의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고역 시기에 그런 번역의 틀을 제공한 것은 현학(玄學)이다. 현학은 노자나 장자가 말하는 무를 세계의 근원이자 도의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이다. **– 2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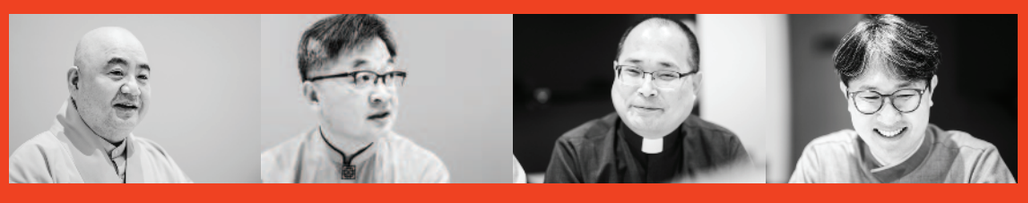
선종은 명심견성 돈오성불을 주창한다. 따라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굳이 경서에 의지하지 않고도 참선수행을 통해 단번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상이 당 중기를 넘어서면서 팽배해졌다. 간명하고 쉬우면 따라하기 좋고, 따라하기 좋으면 오래간다. 그래서 선종은 좌복 하나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갓 스물에 출가한 나 자신도 그랬다. 인간사 좌복 하나면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해도 여한이 없으리란 마음이었다. **– 349쪽**

중국선은 인도에서 유래하였지만 인도선과는 다르다. 중국선의 많은 용어와 방법 및 내용은 인도에서 왔지만 모두 중국사회의 역사적 조건과 전통사상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새롭게 변화발전하였다. 선종 역시 인도불교가 중국화된 산물이지만 인도에서 선종과 같은 방식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선은 중국불교와 중국문화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자리 잡아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 373쪽**

개인적으로 선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로 방법론이 분명하여 참선의 실체화가 가능한 것에 주목하고 싶다. 즉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라는 간화선의 정의는 선을 다음 단계로 끌어갔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현재 선이 간화선이고 간화선이 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명상이나 기도를 한마디로 응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선은 화두를 보임으로써 생물화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화두 자체가 뭘 가능하게 하여 중요한 게 아니라 선에 대해 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 민족이 존속하려면 신화부터 만들어내듯이 선종의 간화선에서는 화두가 신화고 예술이고 종교인 것이다. **– 471쪽**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세계 최초 4대 종교 성직자로 구성된 '만남중창단'
종교 어벤져스로 불리는 이들의 4人 4色 행복대담
불안한 시대에 절대불변의 행복 메시지를 전하다!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오늘이 불안한 요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4대 종교 성직자의 행복 수업

성진, 김진, 하성용, 박세웅 지음
200쪽 | 16,000원



행복
지금의 나,
살아 숨 쉬는 나를 향한
만족과 감사야말로
행복의 시작과
끝입니다.

돈
열심히 노력해서
필요한 만큼 버세요.
다만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진 마세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리란
착각도 버리시고요.

관계
세상에 쉽고 편하면서 좋은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계도 그래요.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기 노력이
요구됩니다.

감정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죠.
표출해야 하느냐 참아야 하느냐,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감정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중독
'No pain no gain'
이 평범한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저 얻어지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지나고 보면 상처와 고통으로
남을 뿐입니다.

죽음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살면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올까요.
죽음은 성숙한 삶을 위한
대화입니다.

이미 온전한 나를 사랑할 것,
이미 온전한 삶에 감사할 것,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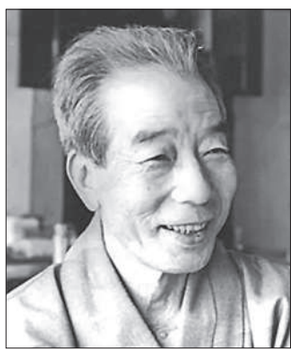
출간기념 북콘서트 ——
• 일시: 1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 장소: 청년공간 JU 지하 다리 소극장(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문의 및 사전접수: 010-3322-8940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실천적 불교인 효당 최범술 조명하다



효당 최범술의 불교와 차도
채정복 지음/민족사/5만7000원



효당 생전 자료들 총망라
국학적 시각으로 규명해
불교인, 차인 면모들 살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효당 최범술(1904~1979) 스님은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다. 불교인이며 원효학 연구자였고, 독립운동가였으며 제헌의원을 지낸 정치가다. 또한 현대 차문화의 중흥조이다.

효당은 우리가 영화로 잘 알고 있는 '박열'과 함께 흑우회(불령선인회)의 일원이 돼 일본 천황 암살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효당(曉堂)은 원효(元曉) 스님의 효(曉)자 호로 사용할 정도로 원효 교학 복원에 평생을 바치며, 국민대학, 해인중고등학교, 해인대학을 창설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탈속적인 고승이 아닌 근대 불교계의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동했다. 이 같은 효당의 생전 자료를 총망라해 국학적 시각으로 규명한 연구서 〈효당 최범술의 불교와 차도(茶道)-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국학 연구〉가 발간됐다.

이 책은 효당의 일생을 통한 활동과 연구의 성격과 지향점이 '국학'으로 귀결하였음을 조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학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이 아닌, 근대적인 민족적 자아의 재발견을 말한다. 나아가 그 지향점이 '살아있는 사람'이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효당은 부처와 중생을 나누어 성불(成佛)을 어떻게 하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직면한 일상사의 소중함과 자연스러운 순리와 부지런한 정진을 강조하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효당은 이를 '대사회성(大社會性)'이라고 하였다.

불교인으로서 효당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해인사 인경(印經, 목판을 인쇄해 책으로 만드는 작업) 도감을 맡아 〈고려대장경〉 인경을 불교계의 동지들과 함께 6개월간 작업해 11월에 완성했다. 이때 효당은 국간판(국가가 제작한 경판) 대장경 외에 그동안 해인사 장경판고의 동서재에 방치돼 오던 사간판(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제작한 목판)도 빠짐없이 인간(印刊)하여 1만1391판에 달하는 '해인사 사간 루판 목록(海印寺寺刊鏤板目錄)'을 완성했다.

이 사간판에서 국간판보다 훨씬 정교하고 우아한 요나라 대안본(大安本)과 수창본(壽昌本)이 발견됐고,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원효 대사의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상권판 4쪽, 고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 완질, 의상 대사의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 등이 발견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간판 고려대장경이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 중심으로 구성된 데 비해, 이들 사간판은 경전의 주석, 중국과 한국 승려들의 개인 찬술, 고승의 전기 어록, 불교 의례 등 다양한 전적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차인이라면 알고 있는 초의 선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인물이 바로 효당이다. 그는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사장(死藏)된 차 문화를 중흥하였다. 경남 사천 다솔사에서 차나무를 심어 차를 직접 만들고 한국 최초의 상업판 단행본인 〈한국(韓國)의 차도(茶道)〉를 저술하여 한국 차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차문화를 대중화시켰다.

책의 저자인 원화 채정복 박사는 효당본가 반야로차도 문화원 본원장이자 효당사상 연구회 회주다. 채정복 박사와 효당과의 인연은 고교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효당의 문하에 정식 입문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효당의 맏제자로 원효(元曉)의 원(元)을 받아 원화(元和)라는 호를 받았다. 그녀는 효당을 이어 원효학 공부, 차도 수련 뿐만 아니라 특히 독자적인 '반야로선차도'를 개창해 국내외에 선차문화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因果 이해하면 고통이 치유된다



카르마 상담소
이충현 지음/담앤북스/1만7000원

"이게 다 네 업(業)이야."

불교에서 '업'은 교리적으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삶에 따른 인과를 비롯해 세상 모든 만물이 서로 작용을 주고받으며 생멸한다는 연기(緣起)를 설명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카르마(karma)'라고 불리는 업. 다만 한국에서 업은 '업장' 또는 '업보'라는 말과 함께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잘 됐을 때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때 주로 사용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과학이 발달하며 이제는 양자역학에서도 불교의 '연기'와 '공(空)' 사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의 과학자보다도 앞선 진리를 설하신 것 자체가 경이로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 '업'이라는 개념을 상담심리학에서는 얼마나 쓸까? 아마도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카르마 상담소〉의 저자 이충현 소장은 '업'을 삶의 인과를 설명하는 진리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치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카르마 인과 법칙'이다.

저자는 카르마 인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생도 내생도 아닌 현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생은 과거 생의 카르마에 의해 야기됐고, 이번 생의 카르마는 다음 생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삶에 고통을 주는 많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돌아보며 인과를 잘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책은 이 시대에 왜 카르마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결과중심적인 세상이 계속되면서 현대인은 삶을 인과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만큼 자기통제력은 빈약해지고 그 대가로 정신이 불안해져 고통스럽다는 말이다.

카르마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의지'다. 의지에 따른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카르마는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이지 않은 카르마에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고의적 카르마가 언젠가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신뢰하면 내적으로 인과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고 조언한다. 결과를 걱정하는 데 쓰이는 심적 에너지를 비축하고, 이 여유분을 통제 가능한 영역에 돌려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저자는 카르마의 인과 법칙에 따른 카르마 상담의 원리 7가지를 설명하고, 통찰과 치유로 이끈 카르마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구와 공존 위한 희망의 편지



친애하는 지구에게
달라이라마 글
패트릭 맥도넬 그림
정윤희 번역
알에이치코리아/1만8000원

노벨 평화상 수상자 달라이라마와 칼데콧 아너상 수상자이자 인기 만화 '머츠(MUTTS)'의 작가 패트릭 맥도넬이 지구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인류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담은 책을 내놓았다.

이야기는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달라이라마의 거처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오며 시작된다. 달라이라마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손님은 바로 보금자리를 잃은 대왕판다. 둘은 서로를 벗 삼아 함께 산책을 떠난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둘은 지구와 자연, 그리고 인간에 관한 크고 작은 이야기를 나눈다.

인류의 발전과 지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달라이라마가 제안하는 것은 '자비로운 혁명'이다. 모든 생명체가 '지구라는 하나의 작은 집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것. 소소하고 하찮아 보일 수 있는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상의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서부터 자비로운 혁명은 시작된다.

달라이라마의 어린 시절을 가득 채우던 아름답고 고상한 야생 동물들의 풍요로운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 지구상의 생명체에 대한 존중심 부족으로 인한 자연 파괴로 그들의 서식지가 사라진 탓이다. 달라이 라마는 인간이 지구를 끝내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구를 보호할 힘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금부터라도 이를 깨닫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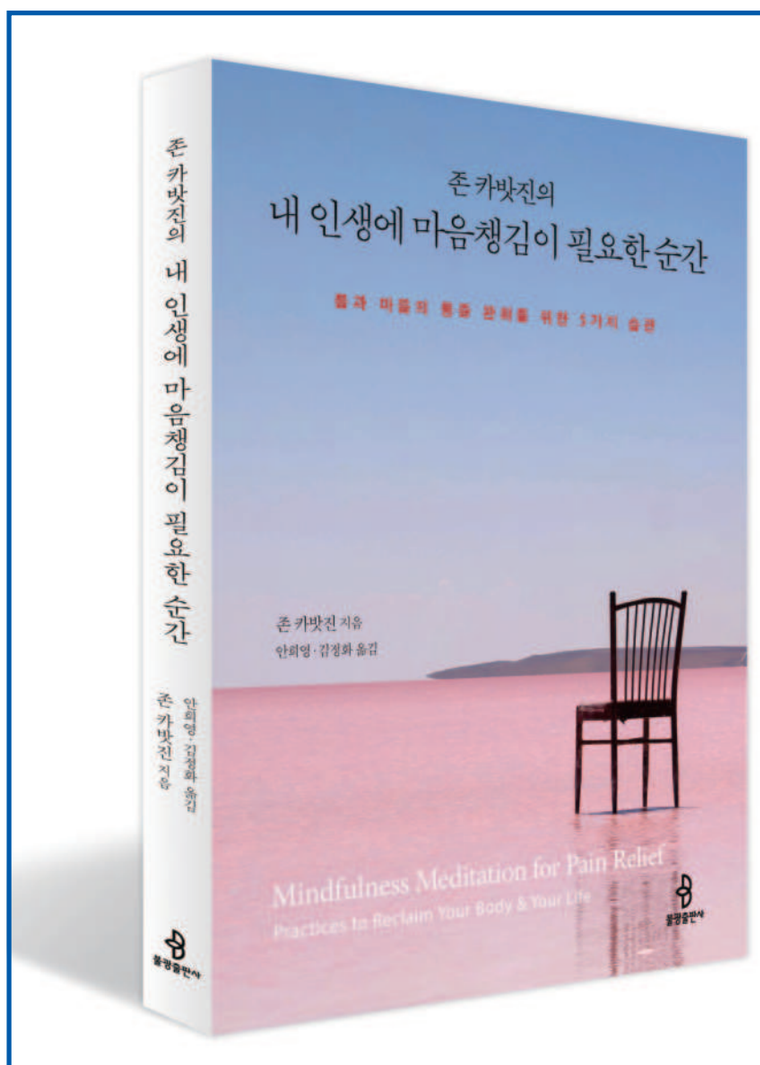
환경과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한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직접적이고 단순하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는 지구라는 자그마한 집을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이 책은 너무나 당연해서 단조롭게 느껴지는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지구를 공유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촘촘한 관계로 엮여 있다는 뜻이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상의 만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달라이라마의 메시지처럼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의 아름다움과 번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깨닫는다면 나에게 지워진 책임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이웃에게 친절하며, 자비심과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책을 읽은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비로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책 속의 밑줄 긋기

우리는 모두 우주와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그 사실에서부터 보편적 책임을 나누어 지는 셈입니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과 번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82~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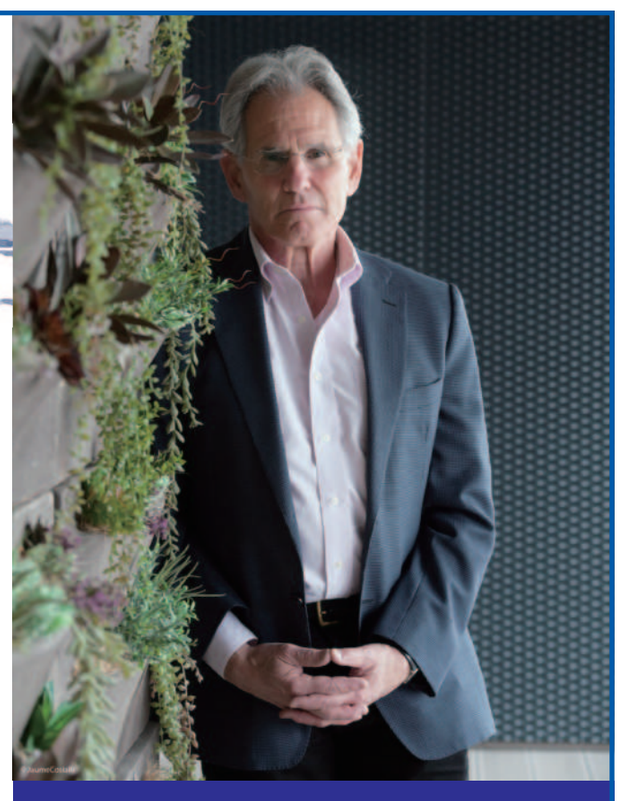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만성 통증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마음챙김 명상의
놀라운 기적!

MBSR 개발자 존 카밧진 박사 최신간!

통증 완화 안내 명상 오디오 수록!

존 카밧진의
내 인생에 마음챙김이 필요한 순간
몸과 마음의 통증 완화를 위한 5가지 습관
존 카밧진 지음 | 안희영·김정화 옮김 | 212쪽 |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이 책은 통증과 괴로움을 이해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줄 것이다."
- 존 카밧진

지상백고좌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공부하다 죽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



원각 스님은… 1966년 해인사 중봉암에서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이후 구족계를 받았다. 수계 후에는 해인총림 선원 등 제방에서 혜암, 성철, 전강, 경봉, 구산 스님 등을 모시고 수행정진했다. 거창 고견사 주지, 해인사 원당암 감원 및 달마선원장, 해인총림 유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15년 3월 해인총림 9대 방장으로 추대된 이후 수많은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부처님 법(法)이 천강(千江)에 골고루 스미듯 세상을 얼려버린 추위도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움츠러들게 한다. 특히나 겨울바람이 매섭기로 소문난 가야산 동장군에게 자비란 없는 듯하다. 말 그대로 뼈를 때린다. 두 겹 세 겹으로 몸을 감싼 목도리가 자기소임을 제대로 못해 민망할 정도.

해인사는 여전했다. 웅장하고 위엄 있는 가람과 각자의 위치에서 흐트러짐 없이 정진하는 대중들의 모습은 전과 다르지 않았다.

비로자나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기 위해 해인사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이날은 마침 조계종 종정을 지낸 혜암 스님의 22주기 추모다례가 있던 날. 대적광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들은 ‘공부하다 죽어라’던 선지식(善知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다.

해인총림의 ‘오직 정진’ 가풍

다례가 끝나고 퇴설당(堆雪堂)을 찾았다. 바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스님의 편안한 미소에 한기(寒氣)가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원각 스님은 2015년부터 총림 대중들을 이끌고 있다. 평생 정진해 온 수행력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산중을 이끌고 있다는 평이다. 그래서인지 스님은 대중들의 정진부터 강조했다.

“이곳 퇴설당은 해인총림의 가풍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대중들의 대중선방으로 또 때로는 어른스님들의 주석처였던 퇴설당은 ‘쌓여있는 눈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덩이처럼 스님들은 오직 참선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의미를 찾자면 달마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혜가 스님의 구도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달마 스님이 소림굴에서 면벽수행을 하고 있을 때 허리까지 쌓이는 눈을 맞으며 도(道)를 구했던 그 혜가 스님의 간절한 정신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옛 선시를 하나 전했다.

入雪忘勞斷臂求(입설망로단비구)
覓心無處始心休(멱심무처시심휴)
後來安坐平懷者(후래안좌평회자)
粉骨亡身未足酬(분골망신미족수)

눈 속에서 괴로움 잊고 팔 끊어 구하니
마음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비로소 마음 편하구나.
훗날 편안히 앉아 평온한 마음을 누리는 이여
뼈를 부수고 몸을 잊어도 보답하기에는 모자라네.

‘퇴설당 정신’을 음미하며 먼저 스님의 수행여정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의 기일에 듣는 사제(師弟) 인연이 흥미진진했다.

‘선악 내려놓으라’는 충고에 발심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행
조사전서 성철 스님 경책에 긴장
선배스님들 정진력에 함께 정진해

혜암 스님 ‘수좌정신’ 韓불교 필요
“공부는 간절히 애써야 성취 가능
간화선 위기? 공부하는 사람 문제”

선악(善惡)의 양변을 내려놓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해인사 약수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해인사 중봉암에 계시던 도림 스님(훗날 봉철 스님)이 자주 약수암에 다녀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도림 스님이 ‘착한 것도 내려놓고 악한 것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발심(發心)이 됐어요.”

스님은 발심의 힘으로 중봉암에 올라 삭발을 하고 출가했다. 1966년의 일이다. 시간이 지나 1966년 동안거가 끝나자 혜암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에서의 정진을 마치고 중봉암에 왔다.

원각 스님은 처음 만난 혜암 스님에게 출가하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다. “선과 악, 양변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혜암 스님은 더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허락했다.

“은사스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노릇 잘 못하면 상좌를 잘못 가르친 스승도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 중노릇 잘하라’고 하시며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라’ 하셨습니다.”

중봉암에서 원각 스님은 혜암 스님과 한 방에서 같이 생활했다. 저녁 9시쯤 자 새벽 2시 30분쯤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 올리고 정진하고 또 가끔 스승의 법문을 들으며 공양 준비를 했다.

“큰스님께서는 참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이 공부를 해야 수지가 맞는다’고 하셨죠. 이와 함께 인과(因果)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시며 스스로 올바르게 살고 철저하게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원각 스님과 혜암 스님은 정진 외 시간에는 울력을 많이 했다.

“큰스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이치에 맞게끔 하라고 하시며 나무 자르고 장작 패고 밥하는 법까지 일러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할 때는 공양간 바닥에 상을 펴서 같이 밥을 먹고 다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정진을 했습니다.

저는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큰스님은 항상 여여하셨습니다. 밤새 장좌불와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깜짝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봉암에서 은사스님께 유일하게 배운 게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이었는데 신심(信心)이 생기고 좋았습니다. 하루는 은사스님께서 부르시더니 어떤 구절이 좋으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평등성중 무피차 대원경상 절친소(平等性中 無彼此 大圓鏡上 絶親疎)’를 꼽았죠. ‘평등한 성품 가운데는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의 본래 마음바탕에서는 가깝고 먼 게 없다’는 뜻입니다.

13면에 계속

祝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全7권 完刊!

大乘起信論 海東疏 血脈記

기신론의 완결판!!!

기신론 해동소 별기를
현대식 어휘로
완벽하게 풀이하였다.

이것이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중흥에는
이 혈맥기 혁명밖에
없다.



원효센터 공파스님 역해/신국판/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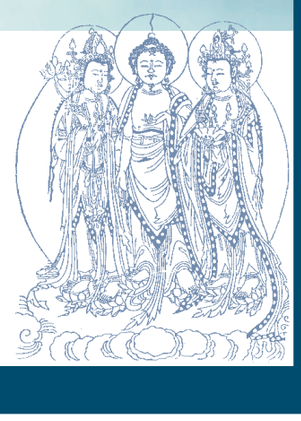
만만한 게 기신론이다. 기신론 안 가르친 스님이 없고 기신론 안 배운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자신에 대해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신론의 핵심인 대승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명보살의 혈통과 원효성사의 맥박을 펄펄 뛰게 살려놓은

이 혈맥기를 모르고 불교를 말하면 반풍수고 이 혈맥기를 벗어난 수행은 사이비다.

그만큼 이 혈맥기는 대승불교 믿음을 일으키는 데 독보적 필독서다.



• 1권 392쪽, 20,000원 • 2권 424쪽, 20,000원 • 3권 384쪽, 20,000원 • 4권 428쪽, 20,000원 • 5권 468쪽, 23,000원 • 6권 492쪽, 25,000원 • 7권 588쪽, 3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中道 깨닫고 알라…그럼 삶이 편안해진다”

12면에 이어

善惡 · 苦樂 양변 떠나는 것이 ‘중도’
공부하려면 ‘중도연기’ 이해가 필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울 올해 총선
시비장단 벗어난 중도의 삶을 살아라”



해인총림 선원에서 대중들을 경책하는 원각 스님.



해인사 원당암에 서 있는 공부하다 죽어라 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제 법명을 한번 지어보라고 하세요. 생각 끝에 성각(性覺)이 어떠냐고 여쭈니 자신과 같은 돌림(性觀)이라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의 법명 원각(源覺)을 지어 승낙을 받고 쓰게 됐습니다. 하하.”

원각 스님은 1967년 계를 받은 뒤 본격적인 납자(衲子)의 길을 시작했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그해에 해인사에는 해인총림이 개설되었다. 방장 성철 스님, 수좌 석암 스님, 주지 지월 스님, 유나 혜암 스님, 율주 일타 스님, 강주 지관 스님 등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이 주요 소임을 맡았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도 현장에서 들었다.

“백일법문은 오후 1시에 시작해서 매일 2시간씩 진행됐습니다. 정말 그 열기가 대단했어요. 성철 스님께서는 불교의 모든 것을 ‘중도(中道)’로 회통해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해인사 선원에는 30명 남짓 사는데, 그때는 70명 이상이 선방에서 정진했어요. 숫자가 많아 좀 고생했지만 그래도 모든 대중이 신심 나서 공부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출가 직후부터 정진의 고삐를 당겼다. 결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시기였다고 한다. 스님은 해인사 선원에서 연달아 세 철 동안 정진했다.

“예전 해인사에는 선방이 3개였습니다. 조사전은 용맹정진, 퇴설당은 가행정진, 선열당은 일반 정진실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조사전부터 경책을 하시면 큰소리가 들립니다. 죽비로 사정없이 경책을 하실 때였으니까요. 대중들이 제대로 정진을 안 하면 ‘밥도둑놈들이 잠만 잔다’고 호되게 경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퇴설당과 선열당의 대중들은 더 긴장해서 자세를 다잡곤 했습니다.

당시는 대중이 많아 방이 부족했습니다. 노장님들도 큰방에서 같이 생활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자야 했습니다. 저는 선열당에서 정진했는데 자다가 눈을 뜨면 이미 대중의 3분의 1은 앉아서 정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같이 정진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점심공양을 마치고 대중들이 큰방에 다 모여서 차담을 함께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어서 분유를 타서 한 잔씩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른스님들이 다 같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힘이 들어도 그때는 정진 분위기도 좋고 대중들이 화합해서 잘 지냈습니다.”

해인사에서의 정진 후 스님은 군대에 다녀왔다. 강원도 화천의 포병부대에서 생활하면서도 스님은 ‘출가자’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근무할 때 쓰는 모자에 화두 ‘마삼근’과 ‘숙맥’을 적어놓고 지냈다고 한다.

“바보처럼 오로지 공부하자는 의미였는데 동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하.”

제대 후에는 지리산 상무주암, 봉화 각화사 동암, 남해 용문사, 하동 칠불암, 남원 실상사 백장암 등에서 혜암 스님을 시봉하며 가르침을 받았다. 스님은 또 통도사 극락암, 순천 송광사, 문경 봉암사, 부산 범어사, 평창 오대산 상원사, 강진 백련사 등의 선원에서 정진을 이어갔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중도정신

원각 스님은 혜암 스님의 ‘수좌정신’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은사스님께서는 공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밥을 많이 먹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공부하다 죽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안으로 공부하고 남을 도와줄 것, 넷째로 주지 등 일체 소임을 맡지 말 것, 다섯째로는 일의일발(一衣一鉢)로 청빈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전 혜암 스님이 주석했던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 옆에는 ‘공부하다 죽어라’ 비(碑)가 서 있다.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하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옳은 마음으로 옳은 일 하다가 죽으면 안 죽어요.”

원각 스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공부 방법으로 이어졌다.

“화두 공부는 우리의 근본 자성자리를 깨우쳐서 그것을 바탕으로 활발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근본 마음 바탕을 깨우쳐 그 바탕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바깥일에 끄달려 생활하게 되면 항상 경계에 휘둘려 주인공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도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근본 바탕자리를 깨닫게 되면 무엇과도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역천겁이불고 긍만세이장금(歷千劫而不古 亘萬歲而長今) 즉, 영겁의 시간이 흘렀어도 옛날이 아니요, 만세의 앞날이 오더라도 늘 지금이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화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각 스님은 ‘의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부를 하려면 먼저 부처님 핵심 사상인 중도연기(中道緣起)에 대해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참을 해야 합니다. 공부는 실제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와 생활이 따로 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정진을 할 때 화두를 분별심(分別心)으로 따져서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공부에 대해 조금 안다고 자만하게 되면 그걸로 공부는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두에 대한 대의심입니다. 의심이 살아 있어야 화두도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공부는 간절하게 애써서 해야 됩니다. 이 공부를 성취해야 인생문제, 생사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수승한 공부법이라고 알려진 간화선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간화선의 빈자리를 파고든 수행법이 한국불교에 정착한 지 이미 오래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원각 스님은 “공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 방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화선은 사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공부법입니다. 그런데 역대 조사스님들의 경우를 보면 화두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화선에 대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심이 부족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써 정진하지 않으면서 쉽게 포기하려 합니다. 정말 이 공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다. 종단적으로도 많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갈등이 아닌 대중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원각 스님은 주저없이 중도(中道)를 꼽았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변(二邊)을 버린 중도(中道)를 정등각했다’입니다. 이 초전법륜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법입니다. 부처님의 ‘중도대선언(中道大宣言)’입니다.

유무(有無)와 선악(善惡), 고락(苦樂) 등의 양변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중도입니다. 마음의 근본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 본래의 마음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한 뒤에 그 바탕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럼 ‘나’라는 것도 세울 게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만 하는 아집을 버리고 역지사지의 정신을 살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많은 국민들도 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칠 수 없었다. 스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약속된 시간을 훌쩍 넘기고 말았다. “천천히 해도 된다”며 스님은 객을 걱정했다. 자리를 정리하고 퇴설당 뒤편으로 가니 원각 스님의 거처 화안당(和安堂)이 나온다. 스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잘 어울리는 화안당에 겨울바람 사이로 따뜻한 볕이 내려오고 있었다.

유철주 / 작가

불교와 꽁트의 만남!! 꽁트를 통해 불교의 세계로 들어간다

불교 지식 꽁트

화제의 신간



무아

혼이 나간 듯
TV를 보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
나는 나의 존재를 잊었다.
망아(忘我)

백화점 명품 코너에서
화석이 되어 버린 아가씨
설마 죽은 것은 아니겠지?

무아(無我) — 나(我)란 없다는 뜻. 논리적 바탕은 오온무아(오온은 무아), 제법무아(모든 존재는 무아)이다. 또 무아는 아뜨만(ātman)을 부정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초기경전의 주석서들에서는 대부분‘실체가 없다’는 뜻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문에서-

글 윤창화 | 204쪽 | 9,500원

저자 윤창화 1972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13회),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한국고전번역원)을 졸업했다. 1980년 불교 전문 출판사인 민족사를 만들어 42년째 불교책을 내고 있다. 논문으로 「한암의 자전적 구도기 일생패궐」, 「한암 선사의 서간문 고찰」, 「무자화두 십종병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저서로는 《왕초보, 선 박사 되다》, 《근현대 한국불교 명저 58선》, 《선불교》, 《불교 사자성어》 등이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아는 것이 힘이다!

불교 사자 성어

사자성어의 의미와 우리의 삶!
사자성어 60개를 두 달 만에 익힐 수 있다!



글 윤창화 | 224쪽 | 13,800원

몽중설몽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다
회자정리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무명장야
-어리석음의 기나긴 밤
팔풍부동
-희로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자비무적
-자비 앞에는 원수가 없다
이고득락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다
실유불성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즉심시불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다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1 낙산사 · 홍련암



▶한줄 요약
낙산사에 가면 꼭 보타전을 참배하고 꼭 칠관음 뒤편에 자리한 32관음응신을 친견하시라. 우리 곁에 있는 관음보살이 그곳에 자리하시니.

관음보살의 가피가 이어지다

관음보살 계신 새해맞이 성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떠오르는 해를 보고자 동해로 간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맞이하는 일출도 장관이다. 해수관음상, 의상대, 홍련암 근처가 최적의 장소다. 새해 첫날 일출에 의미를 두면 의미가 있겠지만, 굳이 첫날일 필요는 없다. 낙산사 일출은 언제나 좋다. 마치 관음보살의 자비광명 같다. 그 때문인지 '일출이 아름다운 낙산사 의상대'가 양양 8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일출만이 전부는 아니다. 낙산사 의상대는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 하나였다.

낙산사는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의하면, 관음보살은 바다 위에 있는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다. 보타락가산은 소화수(小花樹), 소백화(小白花), 해도(海島), 광명 등으로 번역한다. 따라서 관음성지는 바닷가 혹은 물과 관련된 곳인 경우가 많다. 낙산사라는 이름도 보타락가산에서 왔다. 671년 의상 스님(625~702)이 창건하며 지은 이름이다. 〈삼국유사〉에는 낙산사 창건 이야기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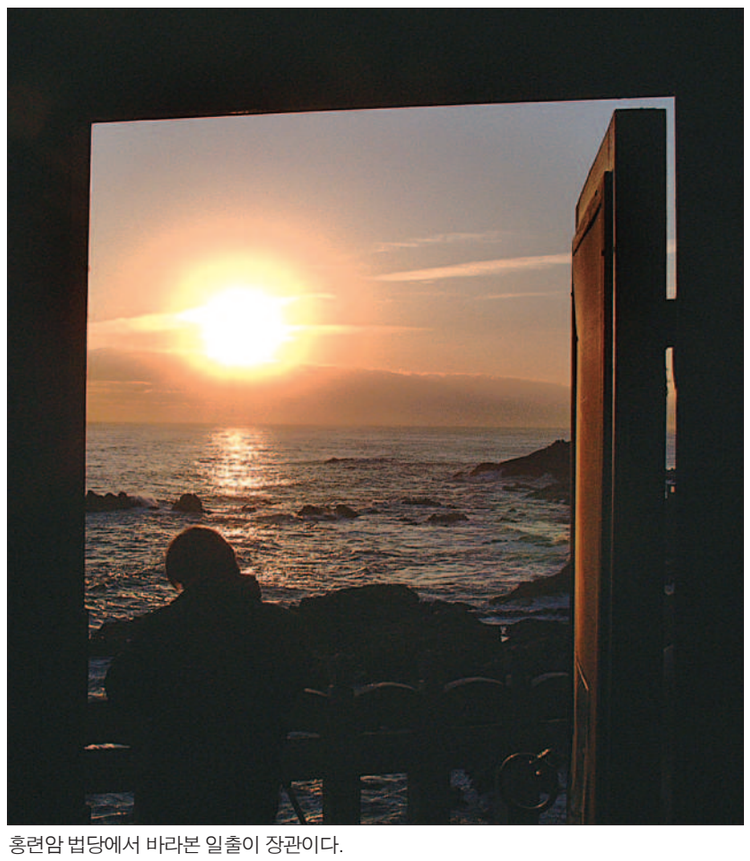
옛날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무렵이다.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이 이 해변 굴 속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스님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수행 재계(齋戒)한 지 7일 후, 앉았던 자리를 새벽 바닷물에 띄웠다. 용과 하늘 등 팔부신중이 스님을 굴속으로 안내했다. 굴 속에서 공중을 향해 예배하자 수정염주 하나가 나타나서 스님에게 주어졌다. 스님이 받고서 물러나니, 동해의 용이 또 여의주 한 알을 주었다. 스님은 이를 받들고 나왔다. 다시 재계한 지 7일이 되자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했다.

관음보살이 말했다. "앉은 자리 위 산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다. 그곳에 불전을 짓는다면 좋을 것이다." 스님이 이 말을 듣고서 나와 보니 과연 대나무가 땅으로부터 솟아났다. 곧 금당을 짓고 불상을 조성하여 모셨다. 원만한 얼굴과 고운 바탕이 하늘로부터 생긴 듯하였다. 대나무는 도로 없어졌다. 바로 이곳이 관음보살 진신이 머무는 곳임을 비로소 알았다. 따라서 절 이름을 낙산이라 이름하였다. 스님은 수정염주와 여의주를 성전에 모시고 떠나갔다.

현재 원통보전이 있는 곳이 금당이 있던 자리다. 수정염주와 여의주는 여러 사연을 간직한 채 여러 곳에 옮겨 봉안하다가, 1466년 세조의 왕명으로 다시 세운 칠층석탑 안에 봉안했다. 의상 스님이 창건할 당시에 3층이었던 탑을 7층으로 다시 세운 것이다.

홍련암서 뵙는 관음보살과 가르침

홍련암은 관음굴 위에 있는 조그마한 법당이다. 스님이 밤낮없이 7일 동안 기도하자 바다 위에서 홍련(紅蓮)이 솟아났고, 그 꽃에서 관음보살이 현신하였다. 이에 홍련암이라 이름하였다.



홍련암 법당에서 바라본 일출이 장관이다.

홍련암 법당은 바닷가 바위와 바위 사이에 걸쳐있다. 창건 당시부터 바다를 볼 수 있도록 법당 마룻바닥에 구멍을 뚫어놓았다. 원래 30㎝ 정도의 크기였다. 그러나 1990년대쯤 사람이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8㎝ 정도의 지금 크기가 되었다. 그리고 뚜껑이 있는 구멍이었다. 뚜껑을 열면 파도 소리와 함께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유리창이다. 이곳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용이 보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 바위 모양이 용 모양처럼 보인다나 어쩐다나. 아니면 바위에 부서지는 하얀 파도와 바위가 어울려 용처럼 보일 수도. 그렇다고 용을 보려고 장기간 용쓰지 말기를.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다면 왜 마룻바닥에 구멍을 만들어 냈을까. 목조건물은 바닷물이 치명적인데 말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이 구멍을 통해 의상 스님이 친견했다는 관음보살을 후세 사람들도 보게 하기 위해서란다. 또는 의상 스님에게 여의주를 바친 용이 홍련암의 법문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란다.

해조음(海潮音)[파도 소리]을 듣기 위한 장치라는 견해도 있다. 〈능엄경〉에는 '부처님께서 자비를 일으켜 대중을 가엾게 여겨 해조음을 보낸다'거나 '관음보살이 해조음으로 세상을 구호하여 평안하게 한다'고 한다. 이때 해조음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자비의 말씀으로 풀이한다. 따라서 마루 구멍은 법당에 참배하는 이들이 해조음을 듣고서 관음보살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장치다. 또는 해조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이근원통(耳根圓通) 수행을 위한 장치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리창보다는 구멍이 더 낫겠다고 하겠지만, 소리를 꼭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는다. 이근원통이 있듯이 안근원통(眼根圓通)도 있으니 말이다.

신라 의상 대사가 창건한 사찰
관음보살 진신 친견했다 알려져
파도 소리로 가르침 전해 듣고
내 안의 화마에서 벗어나보자



홍련암 전경.



홍련암 법당 마룻바닥 유리창으로 바라본 풍광.

오늘날 이어지는 관음보살 가피

관음보살의 가피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홍련암 뒤쪽 언덕에는 공중사리탑이 있다. 1683년 홍련암에서 개금불사를 거행할 때 문득 방안이 서기로 가득하더니, 공중에서 영롱한 구슬이 탁자 위에 떨어졌다. 유리처럼 광채를 내고 있었다. 스님들은 옛날에도 있었던 상서로운 일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무려 9년 동안 탑을 쌓고 구슬을 봉안하였다. 이 공중사리탑이 자리한 곳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서 길지라고 한다.

근래에는 경봉 스님(1892~1982)이 홍련암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였다. 스님은 1930년 2월 25일 홍련암에서 삼칠일(21일) 관음기도를 시작하였다. 13일째 되는 날, 바다 위를 걸어 눈앞에 다가오는 백의관음보살을 친견하는 상서로운 꿈을 경험하고 더욱 새로운 정신력을 얻었다.

혹 관음보살을 친견하지 못하였다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 보타전에는 칠관음보살, 32응신, 1500분의 관음보살이 있다. 무엇보다 부처님, 사천왕, 스님, 부인, 어린아이 등 다양한 모습의 관음보살 응신(應身)을 보면, 신심이 절로 난다. 불보살님은 중생에 상응하는 여러 형상으로 나타나서 자비를 베푼다. 이를 응신이라고 한다. 보통 33응신이라 하지만, 낙산사 보타전은 〈능엄경〉 32응신에 의거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타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보타전을 참배하더라도 칠관음 뒤쪽으로 대부분 가지 않는다. 낙산사에 가면 꼭 보타전을 참배하고 꼭 칠관음 뒤편에 자리한 32관음응신을 친견하시라. 우리 곁에 있는 관음보살이 그곳에 자리하시니.

화마 이겨낸 가피 이야기

낙산사 하면, 2005년 4월 낙산사 화재가 생각난다. 그날 뉴스 화면에는 낙산사가 불타는 붉은 화염으로 가득하였다. 그때 원통보전은 타버렸지만, 법당의 관음보살상은 미리 다른 곳에 모셔 그나마 다행이었다. 사찰 대중의 빠른 대처도 주요했지만, 관음보살상이 건칠불이라서 빨리 다른 곳에 모실 수 있었다. 건칠불은 종이나 베로 만든 불상이다. 건칠불은 철불, 목불, 석불 등에 비해 가볍다. 모든 것이 불보살님의 가피다.

당시 낙산사 화재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신기해하는 부분이 있다. 낙산사 관음보살은 모두 무사하다는 것이다. 원통보전 관음보살은 미리 다른 곳에 모셔 무사하고, 해수관음보살은 화마가 약간 스쳤을 뿐 무사하다. 관음보살이 있는 보타전과 홍련암은 법당 지붕 근처까지 산불이 접근하였지만, 법당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또 하나 있다. 사천왕문이 화마로부터 무사하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관음보살이 무사하다는 이야기보다 필자는 이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1990년대 중반 낙산사 성지순례 때 스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사천왕문은 18세기 말쯤인가 세워진 이래 낙산사에 불이 났을 때마다 무사하던 전각입니다." 이번 화재에도 같은 구역 범종각, 요사채, 원통보전 등은 모두 불타버렸는데, 사천왕문만 무사하였다. 호법신장인 사천왕의 능력 또한 어마어마하다. 혹은 사천왕으로 나타난 관음응신인지. 낙산사를 참배할 때 사천왕에게 인생의 화마에서 벗어날 힘을 기원해보자. 부처님 말씀이 귀에 맴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에 의해 불타고, 성냄의 불에 의해 불타고, 어리석음의 불에 의해 불타고 있고…." 〈잡아함경〉 8권

〈불교학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오직! 마이크소리 구경조건

만으로 전화를 주시면 광고주는 전화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때에만 잠깐 들름니다. 이때!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마이크와 광고마이크를 양손에 쥐고 성능 테스트시 귀 법당 마이크가 장난감 수준정도의 성능 밖에 안되는 것을 100% 실감하신 후 이제는 사찰의 수백만원의 염불시설 투자없이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사찰의 소리가 크게 업그레이드됨의 확신이 올때 광고주와 상담하세요.

주의 : 광고주는 마이크 테스트가 끝나면 신속히 사라집니다.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2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6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66호 | 15 | 전면광고

도에 가까우면 이름이 드러나서 높은 산의 눈과 같고, 도에서 멀면 지혜에 어두워서 밤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6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9억

010-6764-0034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조정 가능)
-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고 기도하기 좋은 절입니다.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량진읍 삼량리 155(자비정사)
- 대지 : 약 1,200평
- 법당 30평, 삼신각 3평, 요사채 30평(방3개, 화장실2개)
- 난방, 심야전기, 지하수
- 가액 : 7억 5천

010-8545-024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 다가구주택 6가구 포함. 3층 건물
- 법 당 : 부처님 삼존불
- 매매가 : 3억8천만원

몸만 오셔도 됩니다.

051-634-33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010-3741-3567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삼기면 석기길 익산시내에서 10분거리
- 토지 : 160평
- 건물 : 법당30평외 2동
- 동불보살님 3분과 탱화 및 살림 포함
- 빈 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 가격 : 1억1천만원 (다른곳 소임문제로 급매매)

010-3676-478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회원구 회원동
- 임대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도심 번화가에 포교지로 적합

010-4438-88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굴 안 내

- 주소 : 경주시 건천읍
- 면적 : 대지 110평, 전 316평
- 건평 : 임법당 16평 1동
  (법당 1칸, 스님침실 1칸,(화장실포함), 공양실 1칸)
- 절충 가능

010-9031-357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칡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66호 | 16 | 전면광고

많이 외운다고 이익될 것 없으니 잘 외운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한 구절만 알고 도를 깨우침만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일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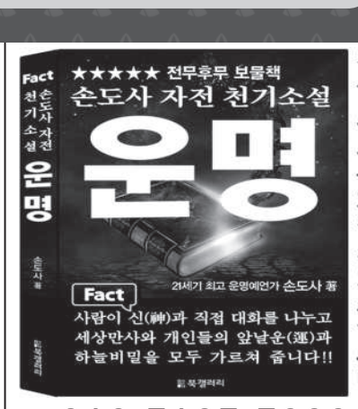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부처님 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도 필히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티끌만한 거짓도 허망도 없는 진실뿐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법회를 마련하시면 참석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10-5366-4905 무심 합장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① 연재를 시작하며

茶, 심신 안정시켜 온 '정신음료'

동양문화권에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음료는 그 종류만도 수백 종에 이르는데, 그 원료로 초목의 뿌리, 잎사귀, 줄기, 열매에서 동물의 일정 부위까지 확대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찌 보면, 광범위하게 음료를 만들어 낸 것은 삶의 필요 요건에 따라 가감되었다. 아무튼 차는 단순한 '마실거리'나 음식과 약의 범주를 넘어 정신음료로 발전됐으니 이는 차나무의 싹을 활용해 문화의 결을 일구어 낸 차의 이해자들이 이룩한 업적이라 하겠다.

차란 원래 차나무의 어린 싹을 가공한 차를 의미하며 때론 중의적인 뜻을 지닌다. 어떤 때에 차는 음료수로 '마실거리'를 뜻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차 싹을 제다라는 공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차란 어휘가 '마실거리'를 아우르는 말로 쓰인 것은 조선 후기 이후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차라고 말할 때 이는 광범위한 의미의 '마실거리'를 뜻한다. 그렇다면 차란 무엇이며 그 의미의 혼용이 일어난 것은 왜일까.

그 어휘의 연원을 살펴보면, 차의 유입 시기인 7세기나 난만한 차 문화를 이룩했던 고려 시대, 조선 전기까지도 차란 차의 싹을 가공한 것을 의미했다. 그러다가 차의 의미가 '마실거리'라는 광의적 의미로 혼용해 사용된 것은 차 문화가 쇠락됐던 양난 이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문화적 현상은 차 문화가 쇠락되어 가던 시기의 형태로 차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어휘 사용의 오류를 지적한 것은 다산 정약용이다.

그가 차란 차나무의 어린 싹을 가공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타물(他物)을 활용하여 만든 음료를 모두 차라고 부르는 것은 오류라고 한 것이 그것이니 이는 그의 〈아언각비〉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차란 어휘 사용의 부정확성은 양난 이후 차 문화가 쇠락되어 가던 시기에 나타난 문화 현상이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근대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커피와 홍차 등을 차라고 부른 것도 어휘 사용의 혼선을 부른 연유라 생각한다.

아무튼 지금 차란 모든 음료를 지칭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구축한 차 문화란 차 싹으로 만든 차를 즐기면서 만들어 낸 독특한 문화의 유형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차 문화의 근간은 차 싹으로 만든 차를 통해 구축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으로 차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현대인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옛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차 즐기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차가 한국에 소개된 이래 차를 통해 자신의 삶은 물론 사회화, 즉 사람 간의 소통에 유익한 매개물로 활용하여 실익을 보았기 때문이다.



전남 승주 야생차밭. 초의 선사는 산골짜기, 바위 곁에서 자라는 차를 최고로 쳤다.

차의 싹을 가공한 오랜 마실거리
남종선 스님들 차 수행에 활용해
사찰만의 독특한 차 문화 형성돼
하수방 〈다동〉 통해 차 역사 조명

그러므로 차의 유용성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동일한 가치와 의미로 응용·확장될 것이며, AI가 보편화되어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현대 사회의 변화는 인류가 비로소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독특한 삶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차의 유용성, 즉 여유로운 시간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차의 생활화는 더욱더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차의 생성과 문화 형성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유익함을 주었던 차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되었던 것일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차란 무엇이며 어떻게 문예적인 소양을 함의한 문화 결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차는 심신의 안정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연결하는 매개물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차의 효능은 정화 능력이 차 응용의 핵심 사항이었다. 이는 신농씨의 설화에서 드러나는 차에 대한 이해의 지표이며, 활용의 명분이요, 실질의 차의 가치를 알았다는 점이다. 바로 차의 이런 특징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것은 차 이해의 선각자들이 이룩한 업적으로 당대 육우가 그랬고, 차를 선 수행에 활용했던 선종 수행자들이 그랬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차를 마시면 정신과 몸이 맑아진다는 점에서 울화와 피로에 찌든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차를 통해 불로장생을 도모했으니 이는 도가에서 차를 활용한 목적이었다. 도가에서 불로장생의 단약으로 이해한 차의 활용을 수행에 적극 차용해 선 수행에 도움을 얻으려한 것은 남종선의 수행승이었다.

이렇게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는 정신음료로 발전해 수많은 수행승이나 도가의 수련자들, 시인 묵객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음다의 수행규범을 만들어 사찰의 독특한 차 문화 형태를 만들어냈으니 이 점이 바로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차 문화가 끊어질 듯 이어진 요인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들이 차를 통해 삶의 향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고상한 뜻을 가진 이들이 차를 아끼고 중하게 여겨 곁에 두고자 했던 연유는 무엇일까. 바로 차의 천연성, 싱그러움과 활발한 생명성, 청량감, 온화함, 향기로움, 소박성, 맑음이다. 이는 사람의 이상적 가치와 관통하는 것으로, 자신을 향상하여 해탈이나 군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차를 즐김으로써 혼탁해진 자신의 심신을 정화하고자 했다.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이 나고 마음이 즐겁다고 한 〈식경〉의 인용문은 바로 차를 마시면 피로와 성냄, 시기와 질투를 사라지게 하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차의 이로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탐독했던 명대 강소 무석 사람 하수방(1551~1635)의 〈다동(茶董)〉은 차의 근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더구나 이 문헌은 초의 선사가 〈동다송〉을 저술하면서 참고했던 중요한 문헌이다. 그러므로 본 연재에서 하수방의 〈다동〉을 기초문헌으로 삼은 연유는 분명하다. 물론 본 연재의 핵심은 한국 차 문헌을 통한 정보와 필자가 40여 년 동안 차를 연구하면서 경험했던 차의 세계를 평이하게 풀어내어 독자들의 차의 이해에 길잡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의미가 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②

1. 현대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민 기본권의 하나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음 중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종교행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신앙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종교행위의 자유는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
③ 조화와 관용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한다.
④ 전교(선교, 포교)의 자유를 합리적인 선에서 자제하는 것이 종교의 사회적 의무이다.
⑤ 전교(선교, 포교)행위는 신앙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사회법에 우선하여 무한정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 세계화 시대, 다양한 종교가 한 사회에 공존하는 경우 사회의 유지와 평화를 위해 전교행위는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신념을 존중하는 선에서만 존중되어야 한다.

2. 종교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윤리적 실천 등을 통한 사회의 정화
② 영생, 구원, 절대자와의 만남 등을 추구함
③ 도덕적 삶의 영위를 통한 실천적 문제 해결
④ 민족공동체를 결성하여 그 종교집단의 정치화
⑤ 삶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통한 절대적 경지의 도달

해설 : 일반적인 현대사회는 정교분리가 원칙으로 종교조직의 정치화는 권장되지 않는다.

3. '세계는 어떻게 생겨나서 움직이는가'에 대한 불교의 견해로, 그 의미가 다른 하나는?

① 모든 존재는 원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이해한다.
② 세계, 즉 우리의 경험계를 수많은 존재의 다양한 관계로 이해한다.
③ 모든 존재는 직접적인 원인과 다양한 조건들의 우연적인 결합으로 이해한다.
④ 모든 존재는 생성되어 유지되다가 파괴의 과정을 거쳐 소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한다.

해설 : 불교는 세계를 인과로 설명한다. 그렇기에 원인이 없는 결과인 우연을 상정하지 않는다. 인과의 다른 말인 인연에서의 연은 우연이 아니라 간접적인 원인(인은 직접적인 원인)을 말한다.

4. 대표적인 '인본주의(人本主義)'종교라고 할수 있는 것은?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이슬람교 ④ 유태교 ⑤ 조로아스터교

해설 : 불교는 인간이었던 고타마 싯다르타가 붓다가 되었으며, 같은 인간(생명)인 우리도 붓다가 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종교이다. 나머지 네 가지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존재 이외에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원을 가르침으로 인간 본위의 종교라고 할 수 없다.

5. 일체중생의 번뇌를 제거하고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으로 전법(傳法)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① 불탑 ② 법륜 ③ 연꽃 ④ 보리수 ⑤ 여의주

해설 : 법륜은 법의 바퀴라는 뜻으로 바퀴가 끊임없이 굴러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많은 여러 사람에게 나아가듯이 부처님의 법이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공간(국가, 사회)에 한정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비유한다.

6. 다음 예화의 주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옛날 자비심이 지극한 왕이 있었다. 그는 항상 백성을 대하기를 자식을 사랑하듯 하였으며, 정신력 또한 굳세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어코 부처님이 되리라고 큰 서원을 세우고 있었다.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황급히 그의 품속으로 날아들어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때 뒤쫓던 매가 나뭇가지에 앉아 왕에게 비둘기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왕은 다리의 살을 베어 그에게 주었다. 왕은 저울을 가져다가 베어낸 살덩이와 비둘기의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러나 비둘기가 무거웠다. 그리하여 두 발꿈치, 두 엉덩이, 두 젖가슴의 살을 베어 달았으나 이상하게도 베어낸 살의 무게가 비둘기의 무게보다 가볍기만 하였다. 마침내 왕은 자신의 온몸을 저울 위에 올려놓자, 그제서야 서로의 무게가 같아졌다.

① 공평하게 무게를 달아야 한다.
②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③ 새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한다.
④ 매가 상징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한다.
⑤ 모든 생명은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다.

해설 : 불교는 자신의 신(몸), 구(입), 의(뜻)로 행동한 결과에 따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존재(예화의 비둘기)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왕도 비둘기가 될 수도 있고, 비둘기가 왕이 될 수 있기에 생명의 존엄성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대상에게 동등하다.

정답 : 1.⑤ 2.④ 3.③ 4.① 5.⑤ 6.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❶ 여거 스님의 백김치 물국수

▶한줄 요약
선방에선 겨울철 감기를 많이 앓다 보니 소화가 안 되고, 열까지 난다. 그럴 때 꺼내는 게 바로 백김치 물국수다. 적당한 탄산이 있어 체기도 내리고 열도 다스릴 수 있다.



눈 덮인 세상 닮은 겨울 '백색미식'

〈白色美食〉

이곳이 무릉도원인가 싶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겨울의 불영사(佛影寺). 하늘과 땅의 경계마저 사라진 순백의 설국을 마주하자 오랜 시간 그려온 이상향의 땅에 다다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좋은 건 딱 3일이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행자 생활이 시작되었거든요."

재미난 기억이 난 것처럼 너털웃음을 터트리는 여거 스님에게 그날의 기억은 오늘도 생생하다.

작지만 어엿한 한 사찰의 주지로, 또 사찰음식 전문강사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요즘이지만, 지금도 그해의 겨울은 결코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다.

출가와 함께 어른스님의 말씀을 따라 무작정 향했던 경북 울진의 불영사. 동해의 세찬 바람과 함께 몰아치던 2월의 함박눈은 이제 막 출가한 스님과 세상 사이를 지우는 결계와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늘 깊은 산중으로, 그런 곳으로 떠나길 바랐어요. 도착해 보니 산이며 계곡, 도량까지 전부 눈으로 덮였는데 얼마나 멋있던지. 말이 안 나올 만큼 좋았어요. 순간 이곳이 극락이구나 싶었지요."

새하얀 그날의 기억은 수행자로서의 첫걸음과 궤를 함께한다. 저마다의 소임이 주어지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터다. 출가 후의 생활은 속가의 때를 벗고 새로운 물을 들이는 시간. 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다듬고, 먹을거리를 준비하여 공양을 올리기까지 출가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세상이 곧 수행의 현장이 되었다.

"힘들지 않았어요. 스님들은 무엇 하나라도 내가 좀 더 하면 그게 복을 짓는 것이라고 배우니까. 매일 조금씩 더 부지런히 살아가는 법, 복 짓는 즐거움을 배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언제나 반가운 이름, 국수

"처음엔 후원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늘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맛있게 잘 먹어주니까 마음이 나서 뭐든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찰음식'이라는 표현조차 낯설었던 시절, 하지만 공양간에서 보고, 듣고, 익히며 쌓은 그 날들이야말로 수행자로서, 또 사찰음식 전문가의 길을 살아가는 오늘의 단초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늘 선방에 가고 싶었는데 자꾸 인연이 닿지를 않고…. 나중에는 사무실에서 소임을 보다가 선방에 가겠다고 짐을 싸러 갔는데, 그때 잡혀서 되레 별좌 소임까지 맡게 됐어요. 나는 복을 못 지어서 선방에 못 가나 싶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웃음)."

하지만 언젠가 마음공부를 하러 떠나겠다고, 반드시 그러겠노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내고, 버텨낸 그곳에 답이 있음을 깨달은 건 한참이나 지난 뒤였다.

아침 짓고 나면 점심 걱정, 점심 하고 나면 저녁 고민에 늘 바빴던 시절. 하지만 정작 여러 사람을 둘러보는 법을 배운 것도, 또 크고 작은 요령을 배운 것도 이때였다.

선방에서 오래 수행을 하고 계신 스님들은 체력이 약해져 쉬이 예민해지고, 면역력이나 소화력이 약해지기가 쉬웠다. 누군가 감기에 걸리면 선방 스님 모두에게 전염되는 것은 시간문제. 스님들의 건강 상태야말로 매일의 식단을 꾸리는 데 가장 큰 변수였던 것이다. 그럴 때면 정해진 메뉴가 있어도 수시로 먹을거리를 변경해야만 했는데, 매번 효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국수였다.

산사서 요긴한 먹거리 백김치에
사찰에 있는 과일·잣 곁들이면
적당한 단맛·고소함 비타민까지
색 곱고 시원한 맛에 스님들 미소

"선방에선 겨울철에 감기를 많이 앓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는 안 되는데 또 열은 나거든. 그럴 때 국수를 하지요. 여름철엔 메밀 국수를 먹지만 메밀은 찬 성질이 있어 겨울철엔 피합니다. 그럴 때 꺼내는 게 바로 백김치 물국수였어요. 적당한 탄산이 있어서 체기도 내리고, 열도 다스리니까요."

늘 한정된 먹을거리 안에서 이런저런 변주를 하기에도 국수는 더할 나위 없는 재료였다. 아침에는 죽, 점심과 저녁은 오후 불식을 하거나 간단하게 드시는 스님들의 헛헛한 속을 채우기 위한 별식으로 국수만큼 좋은 것은 없었다. 아무리 식탐이 없는 이라 해도 국수가 나오는 날이면 누구라도 양껏 드시는 모습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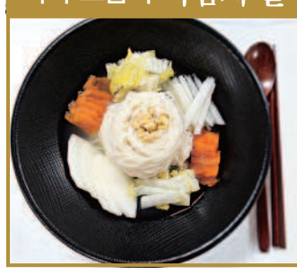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 예전만은 못하지만, 국수 나오는 날엔 늘 곱빼기는 거뜬히 먹었어요. 아마 국수 싫어하시는 스님은 안 계실 걸요."

국수 이야기를 풀어내는 여거 스님의 얼굴에도 어느새 웃음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생각만 해도 정겨운 국수 한 그릇의 힘, 바로 스님들을 웃게 하는 '승소'다.



눈 쌓인 어느날, 여거 스님이 뚝딱뚝딱 백김치 물국수를 만들어 냈다. 오랜기간 별좌 소임을 맡았던 여거 스님은 "음식을 내는 것 뿐 아니라 여러 사람 둘러보고 크고 작은 요령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했다.

여거 스님의 백김치 물국수



재료 백김치 적당량, 백김치 국물 1컵, 다시마 식초, 매실청, 잣, 곶감, 배 조금

만드는 법
1. 국수는 1인분 분량을 삶아서 찬물에 잘 헹궈준다.
2. 백김치 국물과 생수를 1:1 분량으로 섞는다.
3. 2번의 국물에 다시마 식초와 매실청을 각각 1TS 넣어 잘 섞어준다.
4. 국수에 완성된 육수를 부어준 후 잣, 곶감, 배를 예쁘게 얹어주면 완성.

백색의 겨울미식

여거 스님에게 백김치 물국수는 겨울의 먹을거리다. 오래전 그해의 눈 덮인 세상과 닮아있는 깨끗하고, 정갈한 백색의 미식.

"출가해서 보니 절에선 김치도 참 예쁘게 잘라서 담아요. 그중에서도 백김치는 그 색이 정말 깨끗하고 정갈하지요. 특유의 미색과 노란 빛이 겨울과 참 잘 어울려서 겨울 하면 늘 백김치 생각이 절로 납니다."

백김치는 본격적인 김장에 앞서 조금 앞당겨 먹어야 배추가 질기지 않고 맛이 좋았다. 또 다른 김치들과 달리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고, 담그기가 쉬워 편했다. 적당히 익으면 시원하고 아삭한 맛에, 또 달이 들어 아예 시어지면 이런저런 무침이나 조림으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이래저래 신통하고 고마운 존재였다.

오래전 교통이 몹시 불편한 산사에 살 때도 백김치는 요긴한 식재료로 노상 쓰임이 많았다. 깊은 산중에 종일 힘을 들여 찾아온 손님들이 공양 시간을 놓쳐 배를 곯게 되면, 어른 스님으로부터 간단히 요기할 것을 만들어 보라는 부름을 받곤 했다.

산 깊은 사찰에 재료가 넉넉할 리가 만무하고, 공양간도 아닌 작은 다각실에서 무엇이라도 이용하여 먹을 것을 만들어 내던 기억이 생생하다. 물론 겨울이면 빼놓을 수 없던 것이 바로 백김치 물국수다.

"김치만 꺼내 넣으면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있는 재료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절에는 과일이 흔하니 넉넉히 곁들이고, 곶감을 썰어 넣어 잣을 뿌려주면 적당한 단맛과 고소함, 비타민까지 영양가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내어 드리면 색도 곱고, 달콤하고 시원한 맛에 스님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그 시절 스님들께 뚝딱 만들어 올리던 백김치와 국수는 이제 절을 찾는 신도들과 함께 나누는 별식으로 여전히 이 겨울을 채운다.

맛있어라, 사바하!

"대중이 모여 살면 음식이 다양해져요. 한두 명이 있을 때는 찾기 편하고, 좋아하는 음식들만 먹게 되지만 여럿이 함께 모여 살면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각 입맛도 다르고, 또 필요한 음식들도 달라지니까요. 다양함을 인정하고, 함께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배우는 것이 많아집니다."

공양주를 살면 복이 생기고, 채공을 살면 지혜가 생긴다는 어른 스님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었다. 한 끼의 공양이라도 허투루 만들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스님들이 잘 드시고 그 힘으로 더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했다.

지금도 도량보다 더 큰 채마밭에서 연중 농사를 짓고, 또 그것으로 뭐든 만들어 사시사철 신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스님의 여전한 수행 방편이다. 그리고 그 시절 정성껏 만든 음식이 완성되면 잊지 않고 외워주던 한 줄의 주문. '맛있어라, 사바하!'는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이 맛있어지는 은밀한 비법처럼 전해주곤 하는 것이다.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국수 한 그릇이 한 수행자의 배고픔을 달래주길, 그리고 잠시나마 고된 수행의 여정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랐던 그때. 오늘도 그날의 마음을 기억하며 스님은 외친다.

"맛있어라, 더 맛있어져라. 사바하!"

〈작가〉

자연(기) 치유 힐링쉼터

자연(기)치유 원리는 우주에 늘 가득하여 전지전능하며 영원불멸하는 우주만물의 창조근원인 우주무한생명기운을 환자의 체내로 불어넣어 환자의 생명기운을 북돋움으로써 체내 손상된 체세포들이 지극히 빠른 속도로 정상적 건강세포로 원상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자연(기)치유는 기치유자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하는 일은 오직 우주 원기운 즉, 우주본성을 환자의 체내에 불어넣기만하고 모든 치유는 우주본성에 의해 저절로 되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 일반기공사들의 기공치유와 그 원리측면에서 크게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광희기치유는 선천이 아닌,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자연(기)치유 힐링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보십시오.

치유대상: 관절협착증, 신경통, 녹내장, 산후풍, 불면증, 통풍, 공황장애, 냉한별, 이명, 소화장애, 불안증, 심장질환, 호흡장애, 비염, 각종통증, 난치성 질환 등

NAVER 광희기치료

접수문의 010-8589-2679
충남 논산시 계백로 1012 (터미널 근처 차부약국 옆 2층)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자각선원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책은 알라딘, 예스24, 교보에서 판매중입니다



대행 스님

여러분의 마음만 응달을 지어놓지 않는다면 빛이 다 비칩니다

질문자1(남) 스님,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번 날 냉수를 제가 한 컵 마셨더니만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 기분에 온 세상이 다 시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 한생각이면 모든 것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스님 본래 우리가 공생,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고 돌아가고 있지요. 그건 대의적인 문제고요. 내가 한생각을 내서 옆의 사람도 못 보던 거를 알게 됐다, 또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면 내가 시원하니까 딴 사람도 다 시원할 거다 하는 것도 내가 시원하기 때문에 다 시원한데, 나는 시원한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시원한 걸 모릅니다. 대의적으로는 다 시원하게 돌아가는데, 이 뜻을 아는 거는 다 돌아가고 있는데 한 개체가 "난 시원한 걸 모른다." 이런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난 밝은 걸 모른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그럼 그 밝은 걸 모른다 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나.

그걸 비유하건대 만약에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항상 추격을 받고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양심이라 할 때 도둑은 어딜 가도 밝은 대로로 다니길 꺼려합니다, 잡힐까 봐. 항상 골목으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골목으로 이렇게 다니길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밝아도 밝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컴컴한 데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고 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고 저지르고 가는 것은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빼놓고 항상 바깥으로 돌아치니까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업보가 되는 거죠,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깐 그게 쌓이고 쌓이고 덮치기로 붙었으니까 내가 밝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볼 수가 없고 그게 덮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보이긴 뭐가 보여? 바깥이 영 보이질 않지. 안에 그렇게 그냥, 내 면경 안에 그냥 쌓이고 쌓였으니까. 그러니깐 컴컴하단 말입니다. 뭐, 꼭 도둑질을 해서만이 컴컴한 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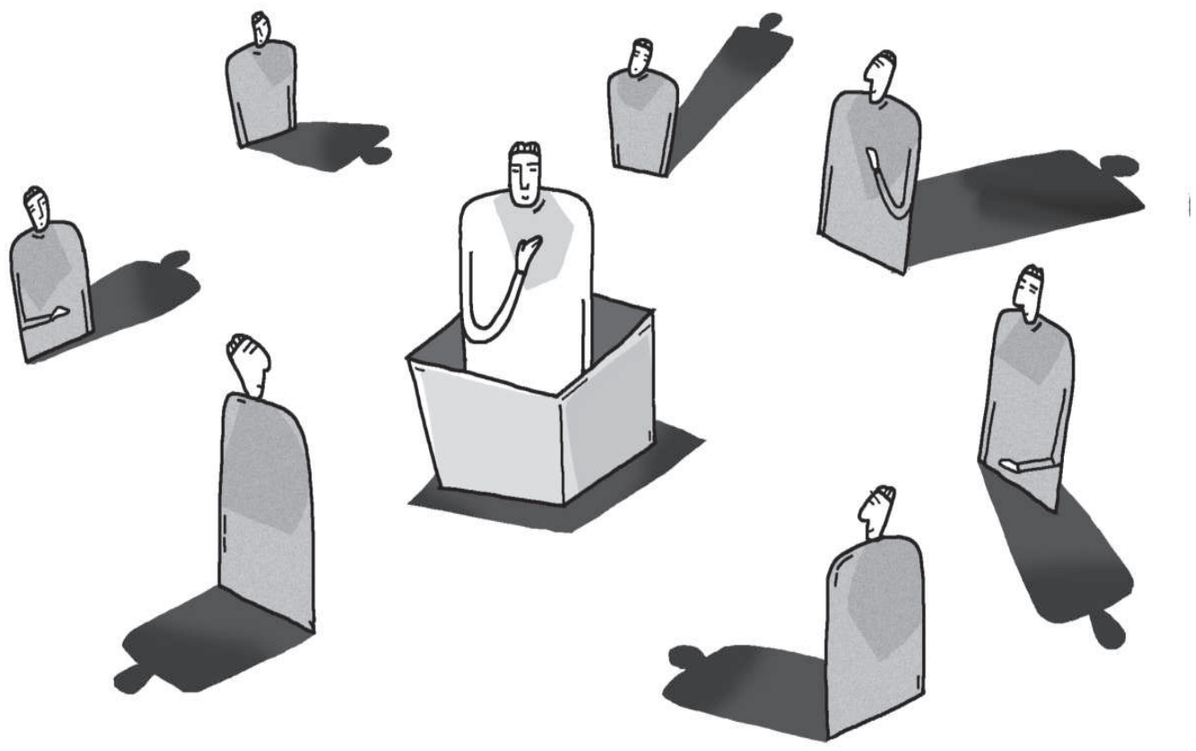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그것이 달리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바깥으로 내가 잘되려고 하고, 믿음을 바깥으로 가진 사람들은 보통 미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잘잘못이 타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의에서 나오고 있단 얘깁니다. 자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의에서 나오는 거를 알았으면 이 모든 걸, 오관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내다보면서 들이는 것도 바로 그 자의에다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타의라는 거는 물론 체가 있고 보이고 또 들리고 이러지마는, 그리고 물질을 보고, 듣는 거를 듣고 판단을 하지마는, 자의라는 거는 내놓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가운데서 책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자기 자의에 놓는다면 자의에서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자의에서 나왔다면 자의에 들이고,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만이 조금도 안팎이 군더더기가 붙지 않고, 인과가 없고, 인과에 끄달리지 않고,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즉 유전에 끄달리지 않고 얼마나 그냥 가벼운지….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지 않고 이러니 얼마나 가볍고 좋겠어요. 오늘의 자유인! 허허허. 그래서 오늘의 자유인이 되니까 결국은 '내가 나로다가 고정되게 있지 않더라.' 그런 걸 알게 돼요.

내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중인데 고정되게 중으로 있질 않더라. 여러분이 볼 때는 항상 봐도 중은 중이죠. 이 물질로 봐서는요. 그런데 어떤 때 가서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땐 간호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땐 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땐, 극치적으로 무슨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변호사도 될 수 있어요. 변호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을 추적해 보느라고 판사도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시골의 한 농부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술집의 작부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어찌 중이라는 게 깨끗한 것이 중이냐는 얘깁니다. 아니,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이 어떻게 부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농부 짓을 했다가…, 그런데 남은 내가 농부 짓을 하는지 모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부동해, 여기는 그대로.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 바뀌져. 내가 수시로 바뀌져. 예를 들어서 나의 근본, 즉 말하자면 발전소는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전기가 나가도 나가도 줄지도 않아. 야, 저 집에도 전기가 나가고, 거지 사는 데도 전기가 나가고, 술 파는 데도 나가고 전기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가발전소는 술집에 전기가 나간다고 해서 발전소 그 자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죠? 불 자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또.

더러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깨끗한 거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마음만 응달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다 비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태양빛을 받으려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옆도 없고 지붕도 없어야 되는데, 만날 옆도 막아 놓고 지붕도 해 놓고 문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하니까 빛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치못한 저 똥구덩이 퇴비 해 놓은 데, 하치못한 그 어렵게 사는 집들, 문짝도 변변치 않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런 데는 볕이 들어갈 수 있어. 하물며 똥구덩이에도 비춰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 놓으니깐 못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야. 볕이 들어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응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누가 활용을 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데 뭘 알아서 해 줘요? 부처님이다 함은 자기 영원한 생명, 그 불성 자체라니까요. 그러나 씀씀이를 쓰는 것은 생각을 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하죠. 쓰고 안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그 생명은, 일체 만물의 그 생명은 다 같다는 얘깁니다. 그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날까지 억겁을 통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나오면서, 모습을 찰나찰나 바꿔 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바꿔 가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공부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날까지 바꿔 왔습니다. 찰나찰나 모습을 바꾸면서 왔어도, 즉 모습이 바뀌지는 거는 자기 마음이 '야,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생활을 할 때 이

☞ 20면으로 계속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일본 교토
벚꽃여행 4일
3월25일 출발~3월28일 도착(3박4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오사카-법륭사-선림사-남선사-청수사-은각사-동복사-아라시야마 천룡사-광륭사-동사-삼십삼간당 등 모두가 벚꽃이 만발한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낄수 있는 최고의 여행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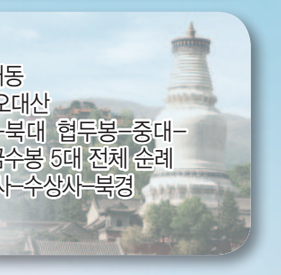
인도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2월26일 출발~3월07일 도착(11일 일정)
동참금 | 300만원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상카시아-아그라-델리-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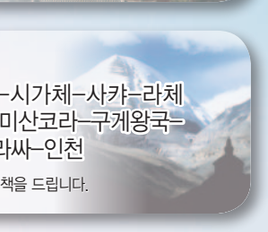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1차 2024년 4월12일~4월21일(9박10일)
2차 2024년 5월17일~5월26일(9박1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중국 운강석굴,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 20일 도착
동참금 | 문의
일 정 | ▶1일 : 대한항공편으로 인천-북경-대동
▶2일 : 운강석굴-응현목탑-현공사-오대산
▶3일 : 오대산 5대봉-동대 망해봉-북대 협두봉-중대-취암봉-서대-계월봉-남대-금수봉 5대 전체 순례
▶4일 : 오대산-보살정-현통사-탑원사-수상사-북경
▶5일 : 북경-인천(대한항공)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내가 나로다가 고정되게 있지 않더라

☞ 19면에서 계속

게 불편하다 그러면 요렇게 바꿉니다.

공장을 하는 데도 기계가 인제 다됐다, '이건 다됐고 앞으로 신품이 나오는데 이 구품을 가지고 하려면 물품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신품을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기계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또 내버리는 거냐.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재생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바뀌지면서 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찰나찰나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퉈 나오지만, 진화되지마는 우리의 마음 근본만은 절대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가 없다 이겁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억 개로, 즉 말하자면 내가 화해서 만법을 응용한다 할지라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음을 '아, 저기는 지금 열 식구가 한 식구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깐 저건 내가 안락사를 해야겠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해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이,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다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할 때에 그건 안락사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건 사람이, 즉 말하자면 교육상으로 가르칠 때에 안락사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지 그건 정말 안락사가 아니에요. 이름이야.

내가 '저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을 무심코 그냥 할 때, 그건 이름도 성도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만약에 그 한 사람을 안락사를 시키고 그 집을 다 살린다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추궁이 들어올까요?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을 했어도 선생님한테 "너 사람 죽였으니 교도소에 가거라." 누가 이런 사람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거 한마디만 들어도, 수만 가지를 해도 함이 없으니, 누가 나를 끌어간다, 갖다 가둔다 이런 것이 없으니 자유인이다 이 소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체가 없는 마음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화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만법을 굴리고 응용해도 누구 하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거는 탓하지도 못해. 단지 안다면 서로 동등한 도반들끼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도리를 배우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극히 나쁜 일은 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래. 또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방편으로써, '저 사람을 내가 꼭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저걸 어떡하면 사람으로 만들지?' 하는데 한두 번 보고 좀처럼 해서는 안 되겠거든. 말로 일러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손을 대지 않고 매를 때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구르다가 나중에 개골창에까지 빠지게 돼서 그때에 인제 다시 개심을 하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야 그때 탁 받아서 다시금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법 없는 법, 판사 아닌 판사, 판사도 보통 판사가 아닙니다. 허허허.

천체 총지휘의 그 뭐, 법원장이라고 그럴까요? 법원장의 권리도 가졌지마는 부처님들 한자리에서 우주 전체의 회의를 하는 데도 같은 좌석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몸이 안 보이는 분들의 권한이 더 세냐, 몸이 있는 분의, 그 공부한 분의 권한이 더 세냐 하면, 권한은 거기에 천체가 같이하면서도 이 몸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즉 말하자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부처님 자리라고 합시다. 여기에서도 항시 자기와 같은 자리면서 몸이 있으니까 몸이 없는 데서 몸이 있는 데로 벌써 심부름을 하게 돼.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뿐이 아니라 마음이 같이 돌아서 나한테로 우선적으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산 부처가 더 무서우냐, 죽은 부처가 더 무서우냐 그러면 산 부처가 더 무서워. 그건 왜? 눈으로 보고 듣고 오관을 통해서 서류 꾸미는 거는 누가 꾸미는 거냐 이거야, 응? 법원장보다 판사가 더 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사도 위력이 있지마는 검사나 서기나 여기에서 잘못해 넣으려면 얼마든지 잘못해 넣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부 공부한 사람의 역할이, 산신의 역할도, 즉 말하자면 검사나 서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의 위치가 바로 판사의 위치와 동일하게 산신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다 이거야.

그래서 '독성' , '산신' 이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독성이라 하는 거는 이 살아 있는 사람의 천체적인 하나의 물리를 말하는 거라. 그리고 또 산신이다 하는 거는 이 삼심이 공존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짓는, 즉 말하자면 판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일을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야. 대통령은 부동자세 하고, 한생각을 내는 데에 법신은 그 능력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역할이 이 세상에 돼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하게끔 돼 있다 이거야. 그 능력은 대의적으로 어느 곳이든 아니 닿는 데 없이 에너지와 같이 우주 전체에 돌아가고 있지마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 그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만큼 손발이 안 닿는 데가 없다면, 지금 현재에도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이고 내고 보고 듣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거기다 발휘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몽둥이로 치는지 또 내 금몽둥이를,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살리는지, 살리고 죽이는 걸 몰라.

그러나 부처님의 방망이는 요술방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처님의 방망이는 항상 자비로운 방망이지 요술쟁이 방망이가 아니야. 그리고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고. 너무나 자비하고 너무나 세세생생에 그 근원이 있는 방망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고 착하고 무던하고 그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앞에는 세세생생에 그 금방망이를 아주 줘 버리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길잡이가 돼 주신다 이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느라고 항상,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캄캄한 데서 살기 때문에 금방망이를 이렇게 들면 그 금이 반사가 되어서 모든 여러분에게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만약에 금을 대낮에 밝은 데서 들면 그것은 빛이 안 나. 캄캄한 데서 들어야 그게 빛이 환하게 나지. 보세요. 캄캄한 밤중에 달이 뜨니깐 밝지만 낮에 달을 보시라고요. 허옇게 그냥 있지요.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는데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하고 있다면 밝아도 밝은 줄을 남이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밝아지면 벌써 어딘가 달라서 자기는 몰라도 남들은 "아, 저분은 어딘가 모르게 참 밝아 계셔. 아휴, 보통 분이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자연적으로 여기서부터 먼저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알아주는 것이 멋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이 "아, 저분은 뭐를 깨쳐서 이렇게 법상을 받고 이런 이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녹음 안됨)

그분한테 이름을 내리는 것도 그렇고 참의 생사를 자재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소지하고 그 주인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공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도. 중생의 무명과 여러 가지 업을 소멸시켜 줄 수도 있고 자유롭게 다스려 줄 수도 있지만, 중생이 다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참마음은 부처님도 깨뜨린다든가 죽인다든가 뭐, 살린다든가 이럴 수가 없을 텐데….

큰스님 글쎄, 내가 알기에는, 아는 것도 없지마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십 번 지켜보고 수십 번 그렇게 말을 해 줘서 듣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이 끊어지게 돼 있어. 즉 말하자면 마음이 가질 않아. 동하질 않아.

그럴 때는 그냥 동하지 않는 걸로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하지 않는 걸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그냥 돌다가…. 그렇게 마음이 가질 않으니까 전체가 마음이 그냥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게 위력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안 가니까 안 가는 대로 살다가 보면 어느 땐가 그것이 회개가 돼. 그럴 때 다시 그 마음이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은 거둘 수가 없다. 언젠가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 이런 거죠.

나쁘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나쁘게 하면 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법정에서 구형장을 발휘해서 붙잡아 가지만 부처님 법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면 바로 법정이, 법원이 바로 거기 있다고. 거기 있어서 그냥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즉시 이렇게 차근차근히 됐다가 나중에 그게 터지면 거기서 그냥 바로 잡혀. 그래서 벌을 받는 거지.

질문자1(남) 결국 이 법정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

큰스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지. 법정이든 경찰서든 병원이든 뭐, 부처님 자리든 산신 자리든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내부에 있다 이거야,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이 태양빛을 받으려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옆도 없고 지붕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놓으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볕이 들어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12월 28일 일반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心 talk talk

⑦ 이유 없는 통증 '신체화'

제대로 감정 표현해야만 억압 벗어나

소원 씨(69·가명)는 지각이 잦은 편이었다. 지각을 하는 날이면 두통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다며 힘없는 모습으로 상담실에 들어왔다. 소원 씨는 이른 아침 상담실로 출발했지만 "항상 이렇게 늦는다"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짓곤 했다.

상담실을 방문하면서도 소원 씨 자신은 상담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들에게 '문제없음'이란 소견을 받았지만 몸이 분명 아팠기에 계속 병원을 찾아다녔다. 병원을 1년 사이 200여 번을 갔고 새벽에 통증이 있으면 식구들이 급히 응급차를 불러야했다. 처음에 아프다고 울고 통증을 호소하는 소원 씨의 모습에 가족들도 긴장했지만 이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런 가족의 모습에 소원 씨는 서러움이 북받쳐 자주 눈물을 흘리곤 했다.

소원 씨의 심리검사 결과 신체화 장애(somatization disorder)로 추측됐다. 신체화 장애는 몸에 특정한 병증이 없어도 계속 몸이 아프거나 사소한 질병에도 과도하게 걱정해 병원을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뚜렷하게 몸에 이상이 없어도 몸이 아프거나 신체증상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전문적인 진단용어로는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라고 불리며 하위유형은 신체증상장애, 질병불안장애, 전환장애, 허위성 장애가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신체화의 특성을 화병(火病)이라고 부른다. '가슴에 뭔가 치밀어 오른다'는 말은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주 하는 말로, '얼굴에 열이 난다'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신체화는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음의 병이다. 이유는 알겠지만 한스럽다는 표현과도 연결된다. 한스럽고 애통하며 속이 상하지만 표현할 방법 없이 참아야 했기 때문이다.

소원 씨의 삶도 참고 속으로 견뎌야만 하는 삶이었다. 남편은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폭군 같아서 그가 집에 들어오는 날은 고통스러웠다. 외도로 인해 고통스러운 아내에게 정성스런 식사를 요구하고 밥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엎어버렸다. 남편의 욕과 폭언은 일상이었고 시부모는 결혼 초기부터 돈을 요구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참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

소원 씨가 남편의 폭력에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것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69년간 참아왔다. 몸이 종종 아프긴 했지만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부터다. 외도 사실을 알고도 말을 꺼내지도, 화를 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소원 씨는 버스를 타면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두통으로 머리가 깨질 듯하다며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억제와 억압의 차이 '알아차림'
인욕바라밀은 성숙한 방어기제

잔인하게도 신체화는 참고 견딘 사람들의 몫으로 나타난다. 감정을 느껴도 표현하거나 말을 해도 해결되지 못하기에 참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결과다. 그래서 심리치료 현장에서는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신체화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쓰는 방어기제가 억압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억압은 생리적인 각성상태를 지속시킨다. 생리적인 각성상태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신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이 아프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긴장상태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억압은 대가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억압'과 '억제'를 구분해야 한다. 억압과 억제를 구분하는 지점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자신이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그로인해 신체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는 것이다. 알아차림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며 참는 것은 억제이며 인욕바라밀이다. 억제는 그래서 성숙한 방어기제로 분류된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생각, 신체 반응 등을 무시한 채 알아차리지 못하면 억압이다. 억압으로 인해 갈 곳을 잃은 감정과 생각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신체화 장애의 치료법으로 의사소통과 감정표현이 주로 제시된다. 이유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 해소하고 누적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세월을 억압해온 환자들은 스스로 감정과 생각을 구분하고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소원 씨를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소원 씨에게 과거를 떠올리면서 신체 느낌이 어떠한지 물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도록 도왔다. 소원 씨는 처음 감정을 물었을 때 대부분 생각으로 대답했다. 감정에 답을 하는 것도 어색해했다. 소원 씨는 처음에 왜 자꾸 신체 느낌을 물어보는지 의아해했지만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돕고 표현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알아차려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배운다. 부처님의 마음공부인 신수심법(身受心法), 사념처(四念處)를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이자 신체화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① 왜 걸을까–신체의 변화

걷기, 고령화시대 필요한 운동

이제 걷기는 교통이라는 본원적 기능보다는 치료 및 예방, 운동 그리고 명상이라는 파생적 기능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선택한 것이 아닌 육체적 활동으로는 유일하기 때문이다.

근골격계의 약화

뼈, 근육 그리고 관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본 요소이다. 나이가 들면서 체지방량이 늘고 근육량이 줄고 골밀도가 낮아진다.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요통, 경부통, 오십견, 퇴행성 관절염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이 발생하면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줄 수 있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는 곧 일상생활에 있어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말하는 목, 허리 디스크를 비롯한 어깨, 손목, 무릎 등의 관절 부위 질환을 통칭한다.

이전에는 반복적인 단순 작업, 또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들고 하는 작업이 많았던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주로 나타났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작업이 늘면서 사무직 종사자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골격계가 약화되면 무거운 것은 물론이고 가벼운 물건을 가지고 하는 운동 또는 부자연스런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이 어렵게 된다.

반사신경 둔화

반사신경은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신경 신호에 의해서 근육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야구공이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발견할 때 그 공이 당신의 머리에 닿기 전에 손으로 막도록 뇌가 신호를 보낸다. 반사신경이 좋으면 스포츠 경기, 운동, 길 건너기, 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반사신경도 노화가 따라온다. 몸의 기민함을 잃어버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반응이 늦어진다. 감각저하와 몸의 균형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사신경이 둔해지면 행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젊었을 적에 즐겼던 대부분의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닌 축구, 농구 등과 같은 단체 운동이나 야구, 배드민턴과 같이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해야 하는 운동은 멀리해야 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걷기, 교통 수단서 운동 등으로 전환
노화에도 큰 영향 없이 하는 활동
다양한 걷기론…맨발 걷기 주목을

순환기계통 약화

순환계는 몸 안의 각 기관에 영양과 산소, 에너지 등을 공급하고, 생명 활동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을 호흡 계통이나 비뇨계통으로 전달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혈액이나 림프액 같은 체액의 흐름을 담당하는 계통이다.

혈액의 순환은 심장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순환 중인 혈액은 산소의 운반, 영양분의 공급, 대사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의 제거, 체온의 유지, 호르몬의 운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폐순환은 온몸을 돌고 온 정맥혈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순환계이다. 이 순환계에서 혈액 순환계인 심장과 손소 순환계인 폐가 약해지면 지속적이고 빠른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노화에도 부담없는 활동, 걷기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거워진다. 눈썹도 무겁다는 말이 실감나게 된다. 두 번째 환갑이 농담 아닌 체험 가능한 세상이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환갑을 지나면 이미 몸은 무거워진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 질병이 없으면서 활동적이며 자유로운 노인은 13.3%에 불과하여 대부분이 만성질환과 함께 활동장애를 겪고 있다.

신체기능의 약화는 노인의 가장 보편적인 건강 문제가 되고 있다.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고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상대가 있는 경기를 하기도 어렵다.

고령화시대의 주역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운동에 의한 위험 혹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운동의 강도(안전한계) 이하이며 운동 효과가 발생하는 최소의 운동 강도(유효한계) 이상의 강도'로만 할 수 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첫째 환갑에서 둘째 환갑 사이에 할 수 있는 육체 활동은 결국 걷기가 유일하게 된다.

과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날수록 걷기의 중요성과 의미는 인간에게 매우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다양한 걷기 방법론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바미 신발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되는 맨발걷기이다.

홍재화 대표는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입사해 파나마무역관에 근무했다. 이후 무역상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필맥스(Feelmax) 브랜드에서 풋맥스(Footmax) 신발을 제작하여 마케팅했으며, 이후 비바미(Vivalme) 브랜드로 변경, 미국과 유럽, 캐나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신발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전법 일기

마음 하나 바꾸니 학생들이 찾아왔다

2023년 7월 통도사 대학생 전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여름내 나의 화두는 영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불연을 맺어주는 것이었다. 물론 웅장원이 통도사포교소로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대학생·청년 전법에는 제법 부담이 컸다. 그래도 불교의 희망을 만드는 불사라 생각하고 뛰어들었다.

두 달여가 지난 2학기 개강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아침 8시에 교내로 들어갔다. '불교동아리 창립 회원모집' 안내판을 걸어놓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친절히 홍보하려던 참이었다.

더위는 여전한 상황에서 교내로 셔틀버스 한 대가 매연을 뿜으며 들어왔다. 환한 미소로 불교동아리 창립과 가입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나 시큰둥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은 보이지 않고 음료를 건네는 손길을 외면하며 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에 점점 내 표정은 굳어만 갔다. 오후까지 기다려 고작 5명의 가입 신청을 받았고, 텅 빈 회원명부에 괜히 내 마음도 상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가. 터덜터덜 절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은 어떻게 전법을 하셨을까?'

다음날 아침, 어제와 같이 당혹스러운 일이 없도록 서둘러 교내로 갔다. 거울을 보며 연신 웃는 인사 연습을 하고 마음을 챙겼다. 내가 어색해서 학생들도 어색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 오늘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하며 보살님들과 원활한 홍보를 하기 위해 업무를 분담했다. 다만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억지로 회원가입을 강요하지는 말자는 것뿐이었다.

300여 명의 학생들이 모두 강의실로 들어갔을 때 나는 밀짚모자를 쓰고 각 단과대학을 찾아갔다. 학생회관 게시판에 불교동아리 홍보 전단지를 부착하면서 학생들과 직접 만날 기회를 기다렸다. 땡볕에 모든 건물을 돌고 나니 팔다리에 힘이 빠져 한동안 의자에만 앉아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보험설계사가 나를 보고 판촉을 했다. 그 모습에서 내가 보였다. 나도 저랬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강의실에서 나온 학생들로 교정이 붐비기 시작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료를 마시는 아이들에게 손짓을 했다. 그동안 불교동아리 가입에만 혈안이 돼 아이들을 봤다면, 이때부터는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앞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고, 시간을 할애하며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거나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생활할 학생들이 가여웠다.

셔틀버스 정류장을 오가는 학생들, 점심을 먹으러 나온 학생들에게 그저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 후식 먹고 가요!" "쉬면서 공부해요. 힘내요!"

그렇게 점심시간 1시간 동안 불교동아리에 24명이 가입했다. 이심전심이구나. 내 마음이 훈훈하니 너도 그렇구나. 동아리 창립에만 매몰된 내 마음이 불안한 청년을 어떻게 보듬어줄까 하는 마음으로 바뀐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다.



통도사포교소 웅장원
덕현 스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① 황벽 선사 오도송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

시련을 이겨야 행복 얻는다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

번뇌를 끊는 수행 예삿일 아니니
(塵勞迥脫事非常)
소코뚜레를 고삐로 매어 길들이듯 하라
(緊把繩頭做一場)
한 번은 눈서리 찬 기운이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不是一番寒徹骨)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 맡을 수 있으리
(爭得梅花撲鼻香)

출전: 고문집(古文集)

'깨달음의 노래'는 구도자의 오도송(悟道頌)을 뜻한다. 깨달음의 세계를 읊은 선시(禪詩)를 문자 사리(舍利) 또는 문자반야(般若, 지혜)라고도 한다. 선시란 깨달음을 주제로 읊은 불교시도 넓게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직 깨달음을 일차적 수행 목표로 삼는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을 종지로 삼는 선종(禪宗)의 시가를 말한다.

선시는 시와 선의 만남이다. 중국에서 선종이 성립되어 발전하면서 선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이 경험한 깨달음의 경지를 게송(偈頌), 한시로 표현했다. 당나라 때는 재가불자인 시불(詩佛) 왕유(王維), 백낙천, 한산(寒山), 습득(拾得) 등 선취(禪趣)가 절정에 이르러서 선시의 시론과 풍격이 일반 시에 영향을 주게 됐다.

우리나라도 고려 무신정권 때 조계 선종이 성립되면서 〈선문염송〉을 지은 혜심(慧諶)의 〈무의자시집〉(우리나라 최초의 선시집) 이후 나옹, 휴정, 초의 등 선시승(禪詩僧)이 출현했다. 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불교시집) 이후 서정주, 조지훈, 조오현, 고은, 천양희, 오세영 등 기라성 같은 시걸이 나와 시단을 이끌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시단의 추세는 선시의 열풍이 지배하고 있다.

수행, 묵은 습관 변화시키는 과정
뼈를 깎는 인내가 있어야 가능해
영산홍이 빨갛게 피어나기 위해선
겨울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한다

앞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시인들의 한시와 현대시 중에서 명품 선시만을 뽑아서 소개하기로 하겠다.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의 칠언절구는 황벽(黃蘗)선사의 오도송이다. 인구(人口)에 회자(膾炙)하는 유명한 선시이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번뇌 망상을 없애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이고 이고득락(離苦得樂)이다.

확암 선사의 〈십우도〉에 잃어버린 소를 찾은 후 네 번째 '득우(得牛)' 단계에서 난폭한 소에게 고삐를 매어 자기 쪽으로 힘껏 끌어당겨 소를 길들이는 수행의 방법이 있는데, 황벽선사는 시의 도입부인 1구와 2구에서 이를 인용하여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어록에 나오는 선문답이나 공안 화두를 인용하여 쓰는 형식의 선시를 송고시(頌古詩)라고 한다.

수행은 자신의 고정관념과 오래 묵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환골탈태의 고행이다. 한 번은 죽었다가 새로 살아나는 뼈를 깎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시인은 3구와 4구에서 "한 번은 눈서리 찬 기운이 뼛속까지 사무친 뒤라야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 맡을 수 있으리"라고 읊었다. 절창이다.

영산홍이 봄에 곱고 빨갛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겨울에 차가운 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시련이 부딪칠 때 온 몸으로 싸워서 극복해야만 행복의 과실을 얻을 수 있다.

구도자의 피나는 수행 과정을 고고한 품격과 지조를 지닌 매화에 비유했다. 깨달음을 매화 향기로 상징해 갈무리하면서 독자에게 투철한 수행과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는 전쟁 중이고 우리나라도 정치와 경제가 위기다. 우리 교단도 사부대중이 화합과 인욕으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 갑진년 용의 새해가 밝았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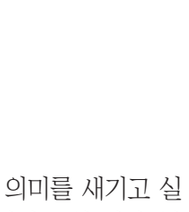
성도절 의미를 새기고 따르자

음력 12월 8일은 부처님이 깨달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이다. 올해 성도절은 양력 1월 18일이다. 예부터 전국 사찰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신도들이 철야기도를 하고 참선하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명절답게 공연을 펼치고 부처님 제자인 수행자를 공양하며 함께 축하했다. 분위기가 차분해진 것은 코로나19 이후다. 함께 모여 법회를 보고 기도를 하던 행사가 전면 중지되면서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행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사찰에서 철야기도와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고 하지만 예년 같지 않은 분위기다. 정신없이 바쁜 신년 초이기도 하고 노령의 불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철야를 버거워하는 분위기도 있어 자연스럽게 축소하게 됐다는 게 사찰 측의 설명이다. 또 현장 법회가 재개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코로나19 3년 동안 앱과 온라인 법회에 익숙해지며 현장 참여율을 예전으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그 이유다.

그렇다 해도 성도절의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려는 의지마저 약해져서는 안 된다. 불교 가르침에 비춰보면 성도는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하다. 탄생은 완벽한 인간을 구현하는 시작이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진리를 체득·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것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삼보(三寶)는 부처님 성도를 통해 이뤄졌고 진리를 찾는 순례가 시작됐으니 이를 명절로 삼아 기리고 실천하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다.

이번 성도절에는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임을 실제 보여준 부처님 성도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첫발을 딛는 거룩하고 역사적 순간을 찬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전한 가르침을 떠올리며 함께 발심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가 집어삼킨 다리…
남은 건 치료비와 병든 아버지

스리랑카 이주민 시란씨, 손가락 이어 다리마저 절단
4000만원 병원 빚 감당 못해 퇴원…하루 한 끼로 버텨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설 쇠는 불자 마음가짐은

현불논단



이성운 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역법이나 문화의 차이로 나라나 지역마다 한 해 첫날이 다르다. 우리는 전통의 음력 정월 초하루를 설 명절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에만 해도 설을 쇠는 문제로 시끄러웠다. 양력설을 쇠는 집, 음력설을 쇠는 집, 두 설을 다 쇠는 집이 있었다. 이것은 이중과세이고 낭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단속도 하곤 한 것 같다.

양력설을 쇠든 음력설을 쇠든, 불자라면 어떻게 설을 쇠는 것이 좋을까. 먼저 사찰의 설 쇠기 문화를 알아보자. 사찰의 설 쇠기 문화에 전통의 통알(通謁)이 있다. "통알은 새해에 연이어 올리는 전통의 세배 의식이다. 세배는 새해 첫날 첫인사인데 대중에서 예불을 마치고, 통알을 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세배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통알의 기원은 천자 나라에서 정초에 대신과 각국의 사신들이 천자를 알현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때 고위 승직의 스님들도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것이 불교의 여러 불보살께 연이어 통으로 인사드리고 대중도 세배를 올리는 형식으로 정착됐다.

통알은 대체로 이렇게 진행된다. 인도스님이 "통알 아뢰오"하며 이를 받는 대표스님이 "복청대중 일대교주 석가세존 전에 세알삼배(대중이여, 일대교주 석가세존 전에 새해에 삼배로 알현하시기를 바랍니다)"하며 절을 올린다. '삼배로 알현하라'고 하면서도 의례 책자나 실제를 보면

신정이든 구정이든 어떻게 설 쇨까
사찰의 설 쇠기 문화는 '통알 의식'
의식서 절의 대상 삼보, 신중, 영령
불자라면 근신·조신하게 설 쇠야

주로 1배를 한다. 통알 의식에서 절을 받는 분들은 누구일까.

'첫째 일대교주 석가모니, 둘째 시방삼세 일체불보, 셋째 교리행과 일체법보, 넷째 대소선교 일체승보, 다섯째 천선지기 명부시왕, 여섯째 금강명왕 주집신기, 일곱째 용왕산신 토지제위, 여덟째 사사시주 백무단월, 아홉째 존망사진 원근친척, 열째 십류삼도 일체고혼, 열한째 동주도반 합원대중' 전에 세알삼배를 올린다. 삼보님과 호법의 신중, 일체 혼령이다.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과 관련이 있다.

궁전의 통알은 황제나 임금에게 영의정부터 아랫사람까지 통으로 죽 이어서 알현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불가의 통알은 석가세존부터 일체 고혼에게까지 세알 삼배를 하고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서로 맞절하는 형식이다. 사실 이것은 통알보다 통례(通禮)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

재가의 불자들도 설날이 되면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거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눈다. 조상님께 올리는 설날의 제사를 '차례'라고 하는데, 이 차례를 '차를 올리는' 다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명절의 차례를 '다례(茶禮)'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차례는 통알에서 볼 수 있듯이 윗대 조상부터 낮은 조상으로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차나 제수를 차례(次第의 음운변화)대로 올리는 것이므로 순서라는 차례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재가불자들이 설 쇨 때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조상과 어른께 차례대로 세배를 올릴 때 '부처님 모시듯이 조심하며 정성을 다해' 조상님과 윗사람들께 절을 올려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신하고 조심하며 설을 쇠고 보내며 한 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자의 바람직한 설 쇠기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 뉴스 검색 제한에 불교 언론 고사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대상 언론을 이른바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로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카카오와 언론사 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다음의 이번 정책 변경으로 CP가 아닌 1000여 곳의 일반 '검색 제휴' 매체의 기사는 포털 다음 이용자로부터 사실상 차단되는 위기에 처했다. 검색 제휴 매체에는 불교계 언론도 포함된다.

검색 대상 언론을 제한한 다음의 이번 결정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이것이 일반 이용자들의 뉴스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언론 및 소규모 전문 매체들의 기사 노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다양성에 역행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언론의 공공성의 가치와 이용자의 알권리를 등한시한 지극히 상업적이고 자사 이기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다음이 해당 언론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하였다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를 비롯한 인터넷 뉴스매체 29개 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불교계 등 검색 제휴 매체는
사실상 검색서 차단된 상황
플랫폼이 뉴스 생산자 선택
공론장 다양성 훼손 우려돼

다음은 '이용자 선호도'를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이번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콘텐츠 제휴 언론사의 기사가 전체 언론사 기사보다 높은 검색 소비량을 보였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뉴스이용자에 대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개별 언론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 뉴스 유통업자 포털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언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지어 전문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들을 상회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털이 뉴스를 단순 판매 상품으로 간주하여 뉴스 유통을 장사 수단이나 상거래 행위로 인식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갈 것이다. 언론이 사회적 공기이고 뉴스가 공공재인 만큼 뉴스 유통의 핵심 플랫폼인 포털은 뉴스 공급의 기본원칙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들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하는 상생의 마인드도 포함된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거든 뉴스 유통권 자체를 언론사에 돌려주는 게 상식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론의 다양성과 공론장 형성에 기여 해온 다수의 언론 매체를 좌절시킨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다음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社 說

청년전법으로 도약하는 불교 기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22년 9월 28일 취임했다. 당시 첫 행보는 청년세대와의 소통이었다. 이후 진우 스님은 취임 200, 300일에도 108배와 함께 청소년·청년세대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여는 진우 스님의 첫 행보도 108배 정진과 청년세대와의 소통이었다. 1월 1일 아침 7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우 스님은 대학생불자들과 조계사청년회, 대한불교청년회가 함께한 108배 정진을 했다. 정진 이후 진우 스님과 청년불자는 자리를 옮겨 1시간가량 차담을 나눴다고 한다.

지난 2023년은 대학생·청년 전법의 씨앗이 뿌려진 해였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이끌었던 상월결사는 지난해 인도순례 이후 대학생 전법을 지상과제로 삼고 그해 7월 6일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해 11월 11일 열린 사부대중 결집대회에서는 대학생 전법기금 151억여 원을 모연하며 대학생 전법 인프라 구축을 이뤄냈다.

대학생 전법으로 시작된 전법 중흥의 열기는 올해에도 이어가야 한다. 특히 대학생·청년 전법은 미래 불교 성패를 좌우하는 대작 불사다. 고무적인 것은 진우 스님이 중앙신도회 신년하례에서 밝힌 대로 군포교 전담TF을 구성해 군장병 수계법회에도 종단에서 적극 동참해 나간다는 점이다. 대학생, 군장병 등 청년 계층에 대한 촘촘한 전법·포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청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에 맞는 방편으로 다가가야 한다.

서울 법련사 창건 50주년에 부쳐

조계총림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가 창건 50주년을 맞았다.

이 도량의 창건과 중창이야기는 드라마틱하다. 효봉 스님을 친견하며 신심을 키웠던 김법련화는 1973년 11월 17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송광사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송광사는 그녀가 내생에는 수행자로 태어나길 기원하며 삭발염의해 사미니계를 수여했다. 법련화는 계를 수지한 다음날 세연을 다했다. 이후 법련화의 49재일인 1974년 1월 5일 법련사 개원법회가 봉행됐고, 도심 포교 반세기의 역사를 이뤘다. 20년이 지난 뒤 법련사는 김우중 대우그룹 내외와 인연을 맺고, 중창불사를 이룰 수 있었고, 지금의 사격을 갖추게 됐다.

중창불사 이후 법련사는 경내 불일미술관을 개관하고 서점, 찻집 등 문화공간을 만들며 파격적인 포교를 선보였다. 불교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문화포교의 새 모델을 제시한 선구자가 바로 법련사다.

50돌을 맞은 법련사는 시대 흐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기념법회에서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의 법문대로 "문명 전환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를 고민하고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도량"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련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모든 사찰들이 고민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하다. 시대를 선도하는 전법을 50돌을 맞은 법련사가 보여주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금강삼매경 개강안내





금강삼매경은 법화부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삼매경을 통해 크게 여섯 가지 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본성이 형성된 원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은 심(心)의 바탕과 식(識)의 바탕이 서로 연(緣)해서 형성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본성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과 식의 바탕을 능연(能緣)하게 함으로써 본성을 인식한다 하셨습니다.

셋째는 본성을 인식한 이후에 어떻게 수행해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로써 진여문에 들어가고 무작해탈, 무주해탈, 무원해탈로써 생멸심을 제도한다 하셨습니다.

넷째는 금강부동삼매와 대자비, 대지혜를 체득해서 등각도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의 적멸상(寂滅相)에 머물러서 적상(寂相)과 정상(靜相)을 균등하게 껴안고 있는 것이 금강삼매이며 그로써 여(如)를 이룬다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는 여여(如如)를 성취하기 위해 대자비와 대지혜를 갖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자비와 대지혜는 생멸심의 제도와 육념처관(六念處觀)을 통해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는 대사적(代謝的) 삶과 연기적(緣起的) 삶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사(代謝)란 각성으로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와 밝은성품을 관(觀)하고 지(止)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연기(緣起)란 정보화된 각성과 본성, 밝은성품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서 자기마음으로 삼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사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것을 실제실상(實際實相)이라 하셨고 연기적 삶을 사는 것을 허상(虛相)의 삶이라 하셨습니다.
중생은 본연(本緣)에서 시작된 연기로 생겨났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의식, 감정, 의지는 허망하고 무상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기의 결과로 생겨난 중생들에게 실제생명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금강삼매경을 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째는 중생으로 하여금 허상생명에서 벗어나서 실제생명이 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緣起)의 끝자락에 서있는 중생에게는 심(心)과 식(識)의 바탕이 본래부터 갖추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의도를 통해 심식의 바탕을 연(緣)하도록 하면 저절로 본성이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의지를 각성으로 전환시키고 심과 식을 여의지 않은 상태로 그 바탕만 연(緣)해 주면 그대로 여(如)를 이룬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능연법(能緣法)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능연을 이룬 다음에는 금강해탈로 본성을 돈독히 하고 여섯가지 식근을 인식한 다음에 심의 바탕과 연(緣)하도록 해줌으로써 본성의 적멸상을 드러낸다 하셨습니다. 적멸상을 인식하면 반야해탈도에 들어간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금강심지(金剛心智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심지에 들어간 존재를 아라한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삼매경을 마무리 하시면서 여(如)를 성취한 아라한은 혜(慧)와 정(定)이 다름없는 행으로써 여여(如如)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강삼매경 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

장 소	구기동 점다카페. 온라인 수강 가능(줌) 서울 종로구 진흥로 469-6, 지하1층
개강일시	2024년 1월 둘째주 금요일(12일) 오후 7시
강 사	구선 스님
강의 시간 및 기간	주1회 2시간, 1년
강의등록	010-9378-9291 (참고 : 한글전화번호 1636 한글명상원)
수 강 료	학기당 200만원 (한학기 6개월)